2장 2003.5.16 5:5PM 페이지18

제`2`장 경제동향

제`1`절 해외경제

2002년중 世界經濟는 연초 들어 전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점차 회복세가 약화되어 연간 성장률이 전년의 2.3%에서 3.0%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국경제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전년의 0.3%에서 2.4%로 높아졌으나 분기별로 큰 기복을 보였으며 일본 및 유로지역 경제도 전년에 이어 부진하였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는 이라크 전쟁 발발 우려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기회복 부진으로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전년보다 높아지는 등 先進國의 雇傭事情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연중 物價는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갔는데 미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현상을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의 물가오름세도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다. 經常收支는 미국의 경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일본 및 유로지역은 흑자폭이 커져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國際金利는 미약한 경기회복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대응하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금리를 인하하고 주가하락 등으로 안전자산인 채권매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연중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주요국 株價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표 Ⅱ-`1> 해외경제지표 추이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실질경제성장률[1]					
전세계	2.8	3.6	4.7	2.3	3.0
선진국	2.7	3.4	3.8	0.9	1.8
미국	4.3	4.1	3.8	0.3	2.4
일본	-1.1	0.2	2.8	0.4	0.3
유로지역	2.9	2.8	3.5	1.4	0.8
신흥시장국	3.5	3.9	5.7	3.9	4.6
아시아	4.0	6.1	6.8	5.7	6.5
중남미	2.3	0.2	4.0	0.6	-0.1
체제전환국	-0.8	3.6	6.6	5.1	4.1
실업률[1]					
선진국	6.8	6.4	5.9	5.9	6.4
미국	4.5	4.2	4.0	4.8	5.8
일본	4.1	4.7	4.7	5.0	5.4
유로지역	10.2	9.4	8.4	8.0	8.3
선진국소비자물가상승률[1]					
미국	1.5	2.2	3.4	2.8	1.6
일본	0.6	-0.3	-0.9	-0.7	-0.9
유로지역	1.1	1.1	2.1	2.5	2.2
신흥시장국소비자물가상승률[1]	10.2	6.6	5.8	5.8	5.4
원유가격상승률[2]	-33.2	39.9	59.9	-14.7	2.5
(달러/배럴)	(12.8)	(17.9)	(28.6)	(24.5)	(25.0)
기타원자재가격상승률[3]	-17.5	-14.0	1.9	-10.1	1.9
세계교역신장률[1]	4.4	5.6	12.6	0.1	2.9
선진국수입물량증가율[1]	6.0	8.0	11.9	-1.1	2.1
미국	11.7	12.4	14.2	-5.2	4.0
일본	-5.3	9.6	11.0	-1.4	1.5
경상수지(억달러)[1]					
선진국	496	-916	-2,245	-1,873	-2,172
미국	-2,038	-2,929	-4,103	-3,934	-5,034
일본	1,191	1,145	1,196	878	1,128
미국장기금리[4]	4.65	6.44	5.11	5.03	3.81
일본장기금리[4]	2.03	1.65	1.64	1.37	0.90
유로달러금리[5]	5.07	6.00	6.40	1.88	1.38
일본엔/미달러[6]	115.2	102.0	114.9	131.5	119.3
미달러/유로[6]	1.172	1.007	0.942	0.890	1.050

주 : 1) IMF 통계 기준. 경상수지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수치는 각국 발표치. 2002년 수치는 각국 발표치, IMF 추정치 순으로 인용. 선진국에는 4개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포함되며 신흥시장국은 IMF의 개발도상국 기준
2) Brent 현물유가, 연평균 3) 로이터상품가격지수, 연평균
4)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연말 5) 3개월 만기 LIBOR, 연말 6) 연말

2장 2003.5.16 5:5PM 페이지20

美달러貨는 2 · 4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으로 엔貨 및 유로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였다.

國際油價는 연초 배럴당 20달러 수준(Brent油 기준)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미국의 이라크공격 가능성 대두 등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12월 들어서는 이라크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급등하여 하순부터는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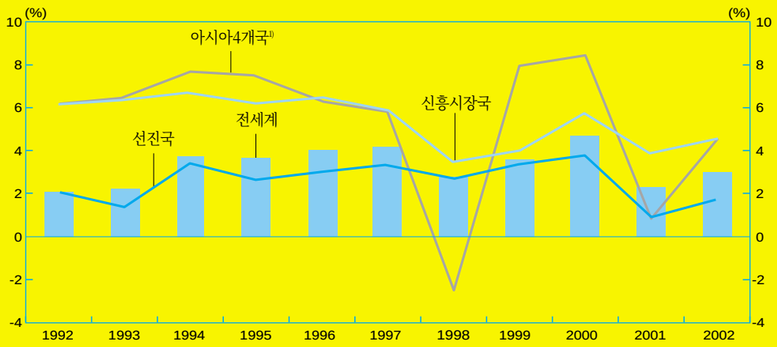
세계경제 회복세 점차 약화

2002년 들어 世界經濟는 9 · 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경기진작책에 힘입어 침체에서 벗어났으나 회복세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연간성장률이 전년의 2.3%에서 3.0%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美國經濟는 저금리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전년의 0.3%에서 2.4%로 높아졌으나 분기별로는 큰 기복을 나타내었다. 특히 2 · 4분기에는 일부 대기업의 회계부정 파문 확산으로, 4 · 4분기에는 이라크 전쟁 우려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日本經濟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전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에 그치고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0.4%)과 비슷한 0.3%에 머물렀다.

<그림 Ⅱ-`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주 : 1)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유로地域 經濟는 지정학적 위험 고조,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1.4%)에 못 미친 0.8%를 기록하였다. 특히 獨逸經濟는 설비투자가 전년에 이어 크게 감소하고 민간소비 또한 부진하여 유로국가중 가장 낮은 연간 0.2% 성장에 그쳤다. 프랑스와 英國 經濟도 수출 및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연간 성장률이 전년의 1.8% 및 2.1%에서 1.2%와 1.8%로 각각 낮아졌다.

新興市場國 經濟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의 3.9%에서 4.6%로 다소 높아졌다. 특히 中國經濟가 수출호조와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등으로 전년(7.3%)에 이어 8.0%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6%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中南美國家 經濟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금융불안이 우루과이 등 인접국가로 파급되고 베네수엘라의 政情 불안이 국영석유회사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침체국면을 지속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經濟는 전년 12월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다만 멕시코經濟는 對美輸出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金融市場이 안정을 유지하는 등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差別化된 모습을 보였다.

선진국 고용사정 악화

2002년중 경기회복 부진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일본 및 유로지역에서도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선진국의 雇傭事情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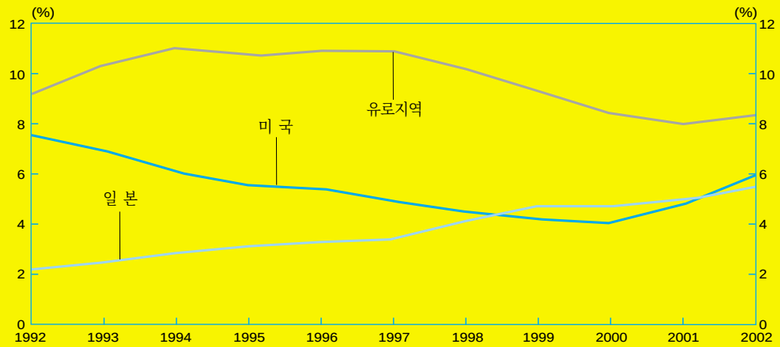
美國은 기업수익의 회복 지연,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기피함에 따라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4월과 12월에는 1994년 8월(6.0%)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6%를 상회하였으며 연평균 실업률도 전년의 4.8%에서 5.8%로 크게 높아졌다.

日本은 경기부진에 따른 인력 감축 등으로 연평균 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인 5.4%를 기록하였다.

유로地域은 경기가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여 연평균 실업률이 전년의 8.0%에서 8.3%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경기부진이 심각하였던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경기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영국은 연중 3%대 초반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2장 2003.5.16 5:5PM 페이지22

<그림 Ⅱ-`2>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1] 추이



주 : 1) 연평균 실업률 기준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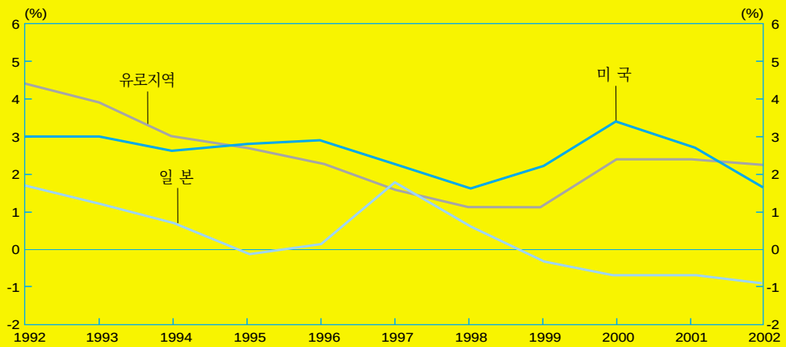
연중 先進國의 消費者物價는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갔는데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현상을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美國의 소비자물가는 공산품 및 일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전년의 2.8%에서 1.6%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4 · 4분기 이후에는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2%대로 다시 높아졌다. 日本은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된 데다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제품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기준으로 0.9% 하락하여 1999년 이후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었다.

유로地域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 유로화 강세 등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전년의 2.5%에서 2.2%로 소폭 낮아졌다. 獨逸은 수요부진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2.0%)보다 크게 둔화되어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으며 프랑스는 전년(1.7%)보다 소폭 높은 1.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英國의 소비자물가(주택저당이자를 제외한 RPIX지수 기준)는 2.2% 상승하여 전년(2.1%)과 비슷한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아시아地域의 소비자물가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전년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며 홍콩은 계속된 내수 부진으로 물가하락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태국 필리핀 등은

<그림 Ⅱ-`3>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 추이



주 : 1) 연평균 기준

전년에 비해 물가오름세가 둔화되었다. 中南美地域의 소비자물가는 자국통화의 가치하락, 政情 不安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특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2월 이후 자국통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2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세계교역 신장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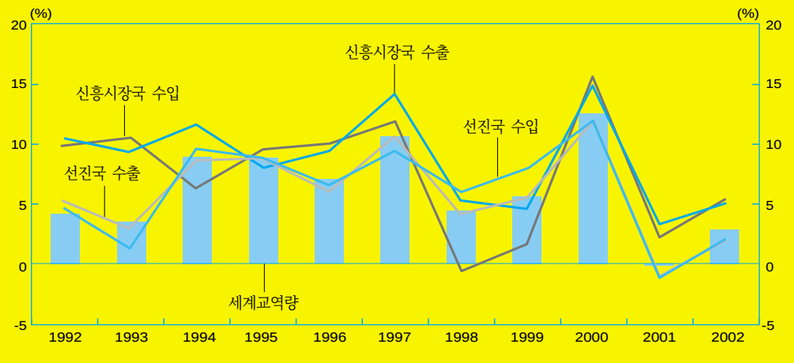
2002년중 世界交易(물량기준)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伸張率이 전년의 0.1%에서 2.9%로 높아졌다.

先進國의 輸入(물량기준)을 보면 美國은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4.0% 증가한 반면 獨逸은 경기부진으로 수입물량이 전년의 1.0% 증가에서 1.5% 감소로 바뀌었다. 한편 日本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확대에 따른 저가완성품 수입 증대로 1.5% 증가하였다.

新興市場國의 경우에는 미국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된 데 힘입어 아시아국가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중남미국가 수출도 소폭 증가하였다.

2장 2003.5.16 5:5PM 페이지24

<그림 Ⅱ-`4> 세계교역량 신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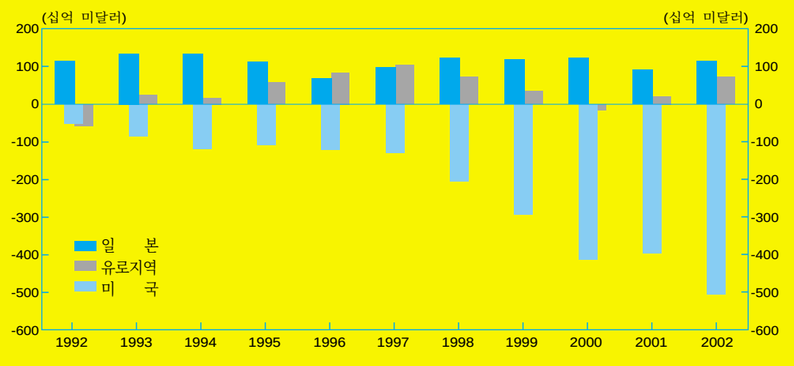


선진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2002년중 先進國의 經常收支를 보면 미국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일본 및 유로지역은 흑자폭이 커지는 등 지역간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美國은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수출은 부진하여 적자규모가 5천 34억달러로 확대되었으며 GDP(명목기준)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전년의 3.9%에서 4.8%로 크게 높아졌다. 日本은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상수지흑자가 전년보다 250억달러 늘어난 1천 128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로地域도 수입수요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년의 194억달러에서 721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림 Ⅱ-`5> 주요 선진국의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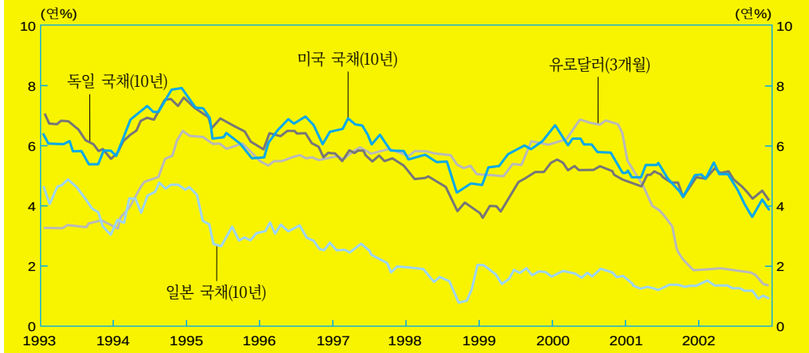


新興市場國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은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국내경기 회복으로 수입도 크게 늘어나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들은 자국통화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됨에 따라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선진국 금리 하락세 지속

주요 선진국의 短期金利는 미약한 경기회복세,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응하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 인하함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長期金利는 연초에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 · 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약해지고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림 Ⅱ-`6> 주요 국제금리[1] 추이



주 : 1) 월말 기준

2장 2003.5.16 5:5PM 페이지26

美國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전년중 11차례에 걸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동 금리를 1.75%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11월에 다시 1.25%로 0.5% 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단기금리가 소폭 하락하였다. 장기금리는 주가 하락,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서 완만한 하락기조를 유지하였다.

日本은 일본은행의 국채매입한도 확대 등 유동성공급 조치로 장기금리가 연중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표 Ⅱ-`2> 주요 국제금리 추이
(기말 기준)

단위 : 연%

	2000	2001				2002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단 기>									
미 국[1]	5.87	4.28	3.63	2.35	1.71	1.79	1.69	1.55	1.22
일 본[1]	0.40	0.05	0.01	0.01	0.01	0.001	0.006	0.002	0.002
유 로 지 역[2]	4.86	4.56	4.44	3.66	3.29	3.35	3.35	3.11	2.75
유 로 달 러[3]	6.40	4.88	3.84	2.59	1.88	2.03	1.86	1.79	1.38
유 로 엔[4]	0.55	0.13	0.08	0.09	0.10	0.09	0.07	0.07	0.07
<장 기>									
미 국[5]	5.11	4.91	5.41	4.58	5.03	5.40	4.81	3.60	3.81
일 본[5]	1.64	1.27	1.19	1.41	1.37	1.39	1.31	1.18	0.90
유 로 지 역[5]	4.84	4.68	5.09	4.78	5.00	5.24	4.93	4.25	4.18

주 : 1) 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 기준 2) 3개월 만기 EURIBOR 기준
3) 3개월 만기 달러화 LIBOR 기준 4) 3개월 만기 엔화 LIBOR 기준
5) 10년 만기 국채 기준

유로地域의 경우에도 유럽중앙은행이 12월중 정책금리를 2.75%로 0.5% 포인트 추가 인하함에 따라 단기금리(3개월 만기 Euribor)가 연초 3%대에서 연말에는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또한 장기금리는 연초에 상승하였으나 그후 경기회복 지연 및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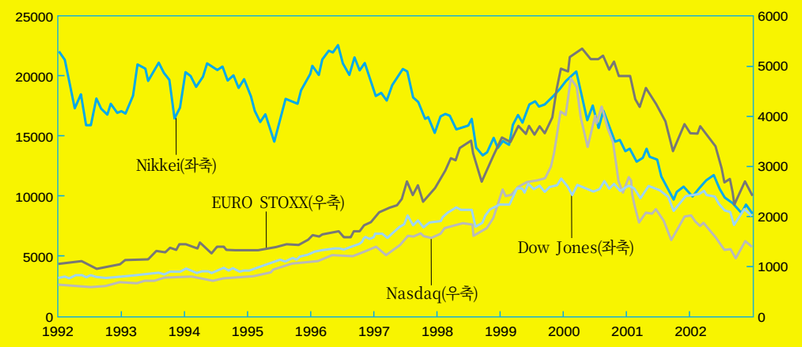
선진국 주가 큰 폭 하락

미국 주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크게 하락하여 200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2002년 들어 대기업의

회계부정 파문이 확산되고 이라크 전쟁과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연중 다우존스 지수는 16.8%, 나스닥 지수는 31.5% 하락하였다.

유럽 및 일본 등 여타 선진국 주가도 동반 하락하였는데 특히 독일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하락률이 40%를 상회하였다.

<그림 Ⅱ-`7> 주요 선진국의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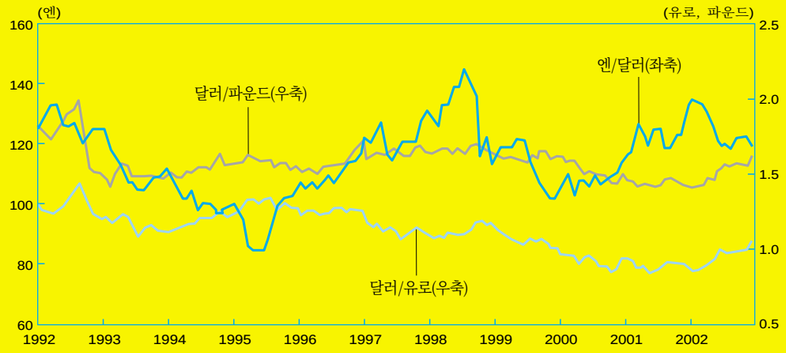


미달러貨,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

美달러貨는 2 · 4분기중 미국의 기업 회계부정 파문 확산,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유로貨 및 엔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급락세를 보인 후 3 · 4분기에는 주가반등, 경기호전 등으로 일시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4 · 4분기 들어 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특히 유로화에 대해 미달러화 약세가 연중 지속되어 연초 유로당 0.90달러 내외에서 연말에는 1.05달러로 연중 17.9% 떨어졌다. 한편 엔貨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美달러貨의 약세가 제약된 가운데 연초 달러당 131.5엔 내외에서 연말에는 119.3엔으로 연중 9.3% 절하되었다.

2장 2003.5.16 5:5PM 페이지28

<그림 Ⅱ-`8> 주요 환율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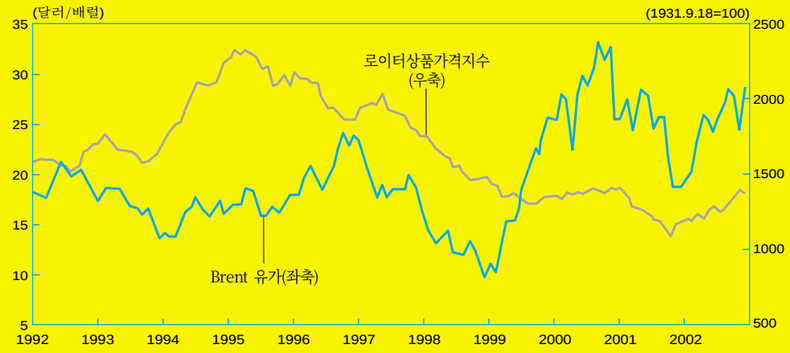
주 : 1) 월말 기준

국제유가 상승

國際油價는 이라크 전쟁 가능성,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파업 등으로 연초의 배럴당 20달러 수준(Brent油 기준)에서 연말에는 배럴당 30달러대로 상승하였다. 9 · 11 테러사건 이후 경기침체 우려로 배럴당 20달러를 하회하던 국제유가는 연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이라크 전쟁 가능성 대두 등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2 · 4분기중 배럴당 25~28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도 국제유가는 불안한 중동정세의 영향으로 전쟁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10월 들어 이라크가 UN의 무기사찰을 수용하면서 일시 반락하였으나 12월 들어 이라크 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파업이 겹치면서 급등하여 하순부터는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였다.

한편 소맥 옥수수 등 곡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호주, 브라질 등 주요 곡창지대의 기후 불순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銅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도 공급물량 축소로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로이터 商品價格指數는 전년에 비해 연평균 1.9% 상승하였다.

<그림 Ⅱ-`9> 국제원자재가격[1)] 추이



주 : 1) 월말 기준, 유가는 월평균 기준

제2절 실물경제

1. 경제성장

국내경기 회복

2002년중 國內經濟는 소비가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2 · 4분기 이후 수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연간 實質 國內總生産(GDP) 성장률이 전년의 3.1%에서 6.3%로 높아졌다. 분기별로는 GDP 성장률이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1 · 4분기중 6.2%, 2 · 4분기중 6.6%로 높아졌다가 3 · 4분기에는 수해 및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5.8%로 낮아졌으나 4 · 4분기 들어서는 수출호조, 설비투자 회복세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6.8%로 다시 확대되었다. 계절변동조정 GDP는 1 · 4분기중 전기대비 2.5% 증가한 후 2 · 4분기 및 3 · 4분기에는 성장세가 각각 1.3%와 1.0%로 둔화되었으나 4 · 4분기에는 2.0%로 다시 확대되었다.

2장 2003.5.16 5:5PM 페이지30

<표 Ⅱ-`3> 수 요 동 향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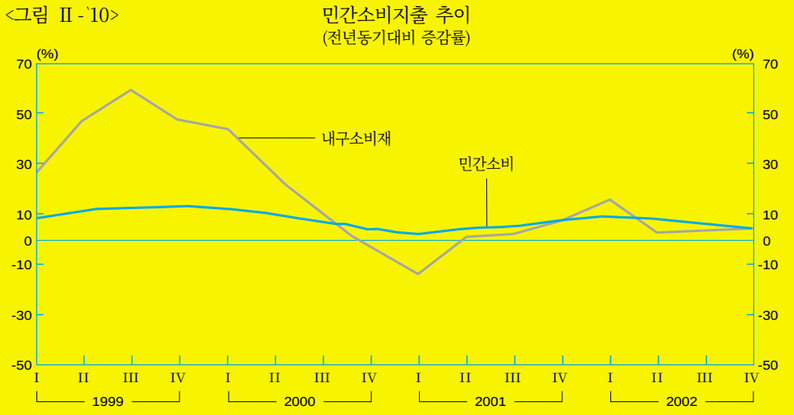
단위 : %

	2000	2001	2002p 연간	I	II	III	IV
최종소비지출	6.7	4.2	6.2	8.4	7.4	5.5	3.8
민간	7.9	4.7	6.8	8.9	7.9	6.2	4.3
정부	0.1	1.3	2.9	5.3	4.4	1.5	1.0
총고정자본형성	11.4	-1.8	4.8	6.6	5.4	0.5	6.8
설비투자	35.3	-9.6	6.8	3.8	7.5	7.8	8.2
건설투자	-4.1	5.3	3.3	9.7	3.8	-4.6	6.0
재고증가[1]	-0.2	-0.1	-0.1	0.3	0.6	-0.5	-0.9
재화와서비스의수출	20.5	0.7	14.9	2.4	12.8	20.3	24.2
재화와서비스의수입	20.0	-3.0	16.4	6.5	18.8	20.5	20.0
국내총생산	9.3	3.1	6.3	6.2	6.6	5.8	6.8
(계절조정, 전기대비)	-	-	-	2.5	1.3	1.0	2.0
국민총소득	3.6	1.4	4.9	7.7	5.6	2.7	4.1

주 :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수요부문별로 보면 消費는 민간과 정부 모두 신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율이 전년의 4.2%에서 6.2%로 높아졌다. 民間消費는 실질임금 증가, 저금리 지속, 전년중 특별소비세 인하의 영향 및 부동산가격의 큰 폭 상승 등으로 연중 6.8%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와 2·4분기중 각각 8.9% 및 7.9%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다가 3·4분기에는 태풍피해

<그림 Ⅱ-`10> 민간소비지출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등으로 증가율이 6.2%로 낮아졌다. 4·4분기 들어서는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4.3%로 더욱 둔화된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 가계대출 억제조치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형태별로 보면 통신 의료 보건 등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상품소비는 승용차 대형TV 등 耐久財 소비가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증가로 반전하였고 準耐久財 소비도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크게 호전되었으나 식료품, 주류 및 담배 등 非耐久財 소비는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한편 政府消費는 물건비 지출이 늘어나 신장률이 전년의 1.3%에서 2.9%로 높아졌다.

투자동향을 보면 固定投資가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在庫投資는 전년과 비슷한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고정투자는 건설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된데 힘입어 전년의 1.8% 감소에서 4.8% 증가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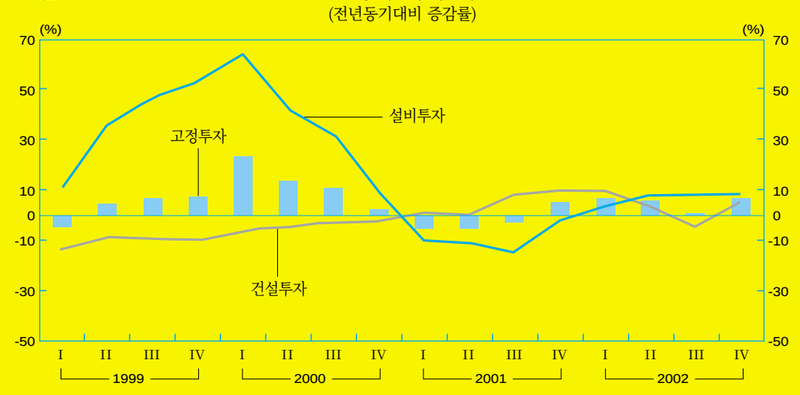
設備投資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등 대다수 품목에 대한 투자가 늘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유휴설비의 상존 등으로 전년의 9.6% 감소에서 연간 6.8% 증가하여 회복속도는 완만하였다. 설비투자 동향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중 영상·음향기기, 산업용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등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3.8% 증가로 전환된 이후 4·4분기까지 7%를 상회하는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형태별로 보면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건설기계 산업용기계 등 일반기계,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 정밀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運輸裝備에 대한 투자도 승용차 트럭 등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늘어 증가로 돌아섰다.

建設投資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연초 호조를 보였던 건물건설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영향 등으로 2·4분기 이후 둔화됨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5.3%)보다 낮은 3.3% 증가하였다. 建物建設에 대한 투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건설과 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4.4% 증가한 반면 土木建設은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었으나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여 6.7% 감소하였다.

在庫는 전년과 비슷한 감소폭(GDP대비 1.7%)을 보였다. 내역별로는 농축임산물재고가 증가하였으나 생산자제품재고는 수출 및 내수 증가로 감소하였다.

2장 2003.5.16 5:5PM 페이지32

<그림 Ⅱ-`11> 고 정 투 자 추 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總輸出(실질)은 연중 14.9% 늘어나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商品輸出은 선진국경기의 회복, 중국에 대한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율이 17.1%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수출은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고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소비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의 3.6% 증가에서 3.0% 감소로 돌아섰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總輸入(실질)은 16.4%의 큰 폭 증가로 반전하였다. 商品輸入은 16.9% 늘어났는데 용도별로는 국내소비 확대와 수출회복으로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철강 석유 등 원자재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수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지출, 화물운임 등을 중심으로 13.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연중에는 소비 투자에 비해 수출 신장세가 더 크게 확대됨에 따라 최종수요 증가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이 전년의 15.2%에서 60.8%로 높아진 반면 내수의 기여율은 84.8%에서 39.2%로 낮아졌다.

한편 交易條件 변화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한 實質 國民總所得(GNI)은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4.9% 증가하였다. 이는 대외자산 증가로 운용수익이 늘어나고 국제금리 하락 등으로 대외이자 지급이 크게 줄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전년의 순지급에서 순수취로 전환되었으나 반도체 통신장비 등 수출상품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실질무역손실이 전년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13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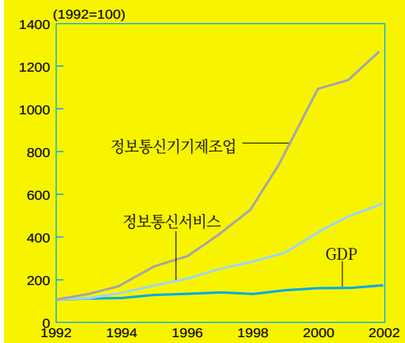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측면을 보면 피용자보수가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6.9% 증가하였지만 경기회복, 금융비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보다 더 큰 10.3% 늘어남에 따라 勞動所得分配率이 전년의 62.0%에서 60.9%로 소폭 하락하였다.

總貯蓄率은 소비증가로 전년의 30.2%에서 29.2%로 낮아졌으며 國內總投資率도 설비투자의 증가 반전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27.0%에서 26.1%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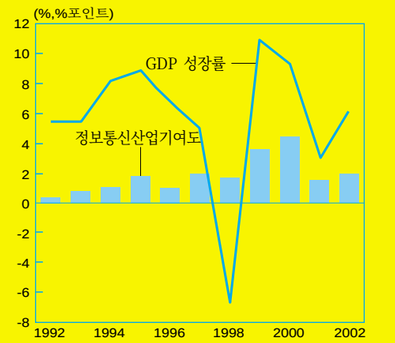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활력 회복

연중 生産活動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의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은 12.0%로 전년의 9.1%에 비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업(통신업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련 서비스)의 신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 회계용기기 반도체 통신기기)의 생산이 수출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년 중 1.4% 포인트에 그쳤던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기여도가 1.9% 포인트로 높아졌다.

<그림Ⅱ-`12> 정보통신산업[1]의 성장 추이



<그림Ⅱ-`13> 정보통신산업[1]의 GDP 성장기여도



주 : 1)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 회계용기계 반도체 통신기기)과 정보통신서비스(통신업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서비스) 포함

2장 2003.5.16 5:5PM 페이지34

製造業은 연중 6.3% 증가하여 전년의 2.1%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2.6%)보다 크게 높은 13.6% 증가하였으며 산업용기계도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5.6% 증가하였다. 반면 운수장비는 자동차 생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부진으로 0.7%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섬유 신발 등의 생산활동은 전년에 이어 부진하였으나 원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산업용 화합물, 철강, 비금속광물 등의 생산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호전되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생산활력 회복을 반영하여 製造業 平均稼動率도 76.8%로 전년(73.2%)보다 높아졌다.

<표 Ⅱ-`4>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

	2000	2001	2002p 연간	I	II	III	IV
제조업	15.9	2.1	6.3	4.2	6.6	5.5	8.8
경공업	2.1	-2.4	1.9	4.0	0.3	-0.9	4.5
음식료품	2.9	1.7	3.0	5.0	-0.4	0.3	7.5
섬유	2.9	-11.0	-7.5	-5.7	-8.5	-11.1	-4.0
의복	22.1	-9.9	7.1	6.8	13.3	5.8	3.6
가죽및모피	-3.9	-13.5	-1.6	-6.6	2.8	3.0	-5.0
신발	-9.8	-12.6	-10.0	-6.4	-9.2	-12.1	-12.7
인쇄및출판	2.4	3.6	6.7	15.9	5.5	5.3	1.2
중화학공업	19.3	3.0	7.2	4.2	7.9	6.8	9.6
산업용화합물	5.1	-1.1	6.2	2.5	4.6	7.6	10.1
비금속광물	7.3	2.8	6.2	11.1	6.0	-1.7	10.7
철강	8.1	1.7	2.9	2.7	1.3	2.4	5.3
산업용기계	24.5	-3.7	5.6	-5.3	10.0	-5.4	21.9
전기·전자	36.5	2.6	13.6	5.7	15.9	17.0	15.6
운수장비	12.3	13.0	0.7	6.0	-0.5	-4.0	2.1

서비스業도 8.8% 증가하여 전년(3.9%)중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업종별 성장내역을 살펴보면 金融·保險·不動産 및 事業서비스業이 10.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금융·보험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사업서비스업도 월드컵 개최 등에 힘입어 광고업, 여론조사 및 뉴스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은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영화 학원 등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4.5%)보다 높은 1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都小賣業과 運輸·倉庫業은 경기회복에 따른 상품거래 증가로 5%대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飮食宿泊業은 휴가기간중 장마와 동해안지역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通信業은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그 동안의 급신장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의 17.8%에서 9.5%로 낮아졌다.

建設業은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건설과 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민간건설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도로 철도시설 항만·항공시설 등 정부건설의 부진으로 전년의 5.6%에서 3.2%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電氣 가스 및 水道業은 경기상승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13.2%로 높아졌으나 農林漁業은 재배업과 해면어업의 생산이 각각 태풍과 조업수역

<표 Ⅱ-`5> `경제활동부문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

	2000	2001	2002p 연간	I	II	III	IV
산업	9.8(90.1)	3.8(89.6)	6.7(89.6)	7.1	7.1	6.0	6.6
농림어업	2.0(4.7)	1.9(4.3)	-4.1(4.0)	0.7	-3.7	-2.2	-6.3
광업	2.5(0.3)	0.6(0.3)	3.9(0.4)	16.5	-0.9	-6.0	7.3
제조업	15.9(31.3)	2.1(30.5)	6.3(29.2)	4.2	6.6	5.5	8.8
전기가스수도사업	14.0(2.8)	5.1(2.3)	13.2(2.9)	13.7	13.1	11.7	14.0
건설업	-3.1(8.0)	5.6(8.3)	3.2(8.5)	8.6	3.1	-3.8	6.3
서비스업[1]	9.5(43.1)	3.9(43.4)	8.8(44.6)	8.1	9.2	9.5	8.6
도소매음식숙박업	9.8(12.1)	4.0(12.3)	5.6(12.0)	4.1	4.9	6.3	6.8
(도소매)	10.5(9.2)	3.0(9.2)	5.5(8.9)	3.7	4.1	6.4	7.4
(음식숙박)	3.0(2.9)	7.6(3.1)	6.0(3.1)	5.6	7.6	6.2	4.7
운수창고및통신업	17.9(6.7)	10.5(6.7)	7.4(6.6)	9.4	8.2	6.7	5.5
(운수창고)	9.7(4.4)	4.3(4.3)	5.3(4.3)	7.3	7.2	5.2	1.5
(통신)	29.2(2.3)	17.8(2.4)	9.5(2.3)	11.6	9.2	8.2	9.3
금융보험부동산 및사업서비스업	4.9(19.0)	3.0(19.1)	10.6(21.4)	11.2	11.3	11.8	8.3
사회및개인서비스업	5.1(5.3)	4.5(5.9)	11.4(6.2)	12.2	13.8	11.6	8.0
정부및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2]	0.3(9.9)	0.9(10.3)	8.1(10.5)	0.7	0.6	1.4	1.5
국내총생산	9.3	3.1	6.3	6.2	6.6	5.8	6.8
국민총소득	3.6	1.4	4.9	7.7	5.6	2.7	4.1

주 : 1) 수입세 포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2) 가사서비스 포함
3) ( )내는 GDP대비 비중, 당해년가격 기준

2장 2003.5.16 5:6PM 페이지36

축소 등으로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여 4.1% 감소하였다.

한편 國內總生産(명목)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년의 43.4%에서 44.6%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은 30.5%에서 29.2%로 낮아졌으며 건설업은 8.5%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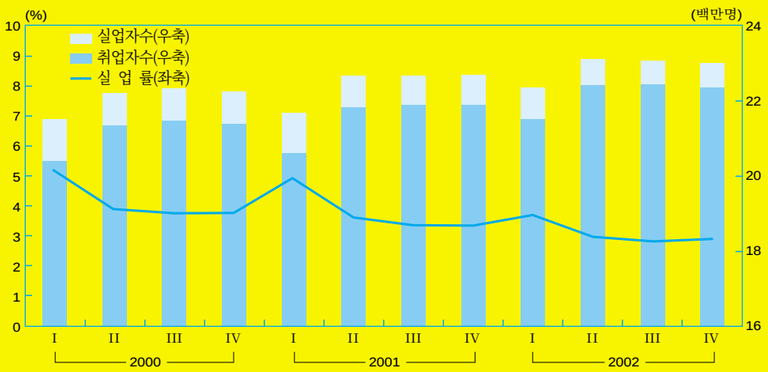
2. 고용 및 임금

실업률 하락 지속

2002년중 雇傭事情을 보면 먼저 경기회복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經濟活動人口가 2.1%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인력의 취업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2.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失業率이 전년의 3.8%에서 3.1%로 하락하였으며 失業者數도 전년의 85만명에서 71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Ⅱ-`14> 주요 고용[1]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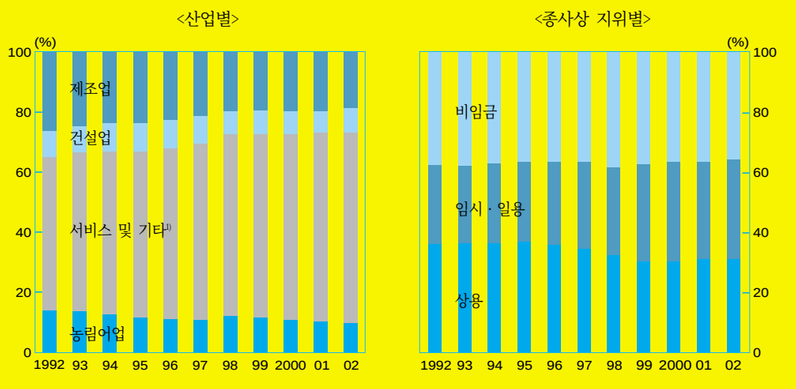


주 : 1)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중에서 조사대상기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취업자로 분류[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에 따른 분류]

분기별로 보면 1 · 4분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림어업 및 건설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3.7%로 높아졌다. 그러나 2 · 4분기 들어 농사철 도래 등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실업률이 3.0%로 크게 떨어졌으며 그후에도 더욱 하락하여 3 · 4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8%를 기록하였다. 한편 4 · 4분기중 실업률은 2.9%로 다시 높아졌으나 연초 80만명을 넘었던 실업자수는 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산업별 雇傭動向을 보면 서비스業 就業者는 업황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4.0%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전년중 거의 늘지 않았던 建設業 就業者도 10.2% 증가하여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력투입이 많은 건물건설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띤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러나 製造業 就業者는 업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한 정보통신업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설비자동화 등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이 지속된 데 기인하여 전년에 이어 0.6% 감소하였다. 한편 農林漁業 就業者는 1 · 4분기중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이농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별 취업변화를 반영하여 全産業 就業者중 農林漁業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전년의 10.0%에서 9.3%로, 製造業은 19.8%에서 19.1%로 각각 낮아진 반면 서비스業 就業者 비중은 62.8%에서 63.6%로 더욱 높아졌다.

<그림 Ⅱ-`15> 취업구조



주 : 1)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건설업을 제외

2장 2003.5.16 5:6PM 페이지38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를 보면 賃金勤勞者중 常傭勤勞者가 2.2%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臨時 · 日傭勤勞者는 전년의 소폭 감소에서 5.4% 증가로 반전하였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채용 확대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非正規職 勤勞者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하였다. 한편 非賃金勤勞者는 개인창업 증가 등으로 자영업주가 꾸준히 늘어났으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반영하여 전체 취업자에 대한 常傭勤勞者의 비중은 31.0%로 거의 변하지 않은 가운데 臨時 · 日傭勤勞者 비중이 전년의 32.2%에서 33.0%로 확대된 반면 非賃金勤勞者의 비중은 36.7%에서 36.0%로 축소되었다.

<표 Ⅱ-`6> 고용관련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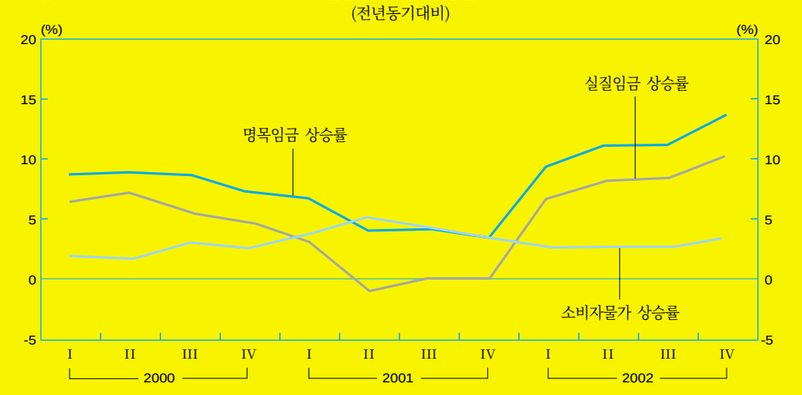
	2000	2001	2002 연간	2002 Ⅰ	2002 Ⅱ	2002 Ⅲ	2002 Ⅳ
경제활동인구	22,069	22,417	22,877	22,339	23,112	23,067	22,989
경제활동인구증가율[1]	1.9	1.6	2.1	3.0	2.0	1.8	1.4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9	60.7	62.6	62.3	62.0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1,511	22,423	22,416	22,326
취업자수증가율[1]	4.3	2.0	2.8	4.3	2.7	2.4	1.8
<산업별>							
농림어업	-2.6	-4.2	-3.7	1.1	-5.1	-5.3	-4.0
광공업	6.6	-0.6	-0.6	-0.4	-0.5	-0.3	-1.2
(제조업)	6.6	-0.6	-0.6	-0.4	-0.5	-0.3	-1.2
SOC및기타서비스업	4.7	3.7	4.6	6.0	4.8	4.3	3.5
(건설업)	7.1	0.3	10.2	13.1	11.7	8.5	7.9
(서비스업)	4.5	4.1	4.0	5.3	4.0	3.8	3.0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2.2	1.5	0.9	2.9	1.2	0.3	-0.5
(자영업주)	2.8	3.2	2.3	4.3	3.1	1.6	0.3
(무급가족종사자)	0.3	-3.5	-3.5	-1.9	-4.6	-3.8	-3.5
임금근로자	5.5	2.2	3.8	5.1	3.5	3.6	3.2
(상용근로자)	4.2	5.0	2.2	2.5	1.4	2.1	2.9
(임시 · 일용근로자)	6.7	-0.3	5.4	7.6	5.6	5.0	3.5
실업자수	913	845	708	829	689	652	663
실업률	4.1	3.8	3.1	3.7	3.0	2.8	2.9

주 : 1) 전년동기대비

임금오름세 확대

名目賃金(상용근로자 기준)은 정액 및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연중 11.2% 올라 전년의 5.1%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내역별로는 定額給與의 상승률이 경기회복, 연봉제 도입 확산에 따른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정액급여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의 6.3%에서 12.1%로 높아졌다. 또한 特別給與도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 증가로 13.4% 올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시간외근로의 지속적인 축소로 超過給與는 3.9% 감소하였다. 한편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의 0.9%에서 8.2%로 대폭 높아졌다.

<그림 Ⅱ-`16> 전산업 임금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업종별로 보면 먼저 製造業 임금은 정보통신업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호전됨에 따라 상승률이 11.9%로 크게 높아졌다. 서비스업중 運輸 · 倉庫 · 通信業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및 여행수요의 확대로 임금상승률이 전년의 1.9%에서 8.4%로 높아졌으며 金融 · 保險 · 不動産 및 事業서비스業이 업황이 호전된 금융 · 보험업을 중심으로,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호조 지속으로 각각 10.4%와 12.4% 올라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都小賣 · 飮食宿泊業도 상여금 지급 증가 등으로 10.1% 상승하여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2장 2003.5.16 5:6PM 페이지40

이 밖에 建設業 임금은 민간건설이 활기를 띰에 따라 전년의 감소에서 10.2% 증가로 돌아섰으며 電氣 · 가스 · 水道業 임금도 전력사용량의 증가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에 힘입은 업황 호조로 13.1% 상승하였다.

<표 Ⅱ-`7> 임금관련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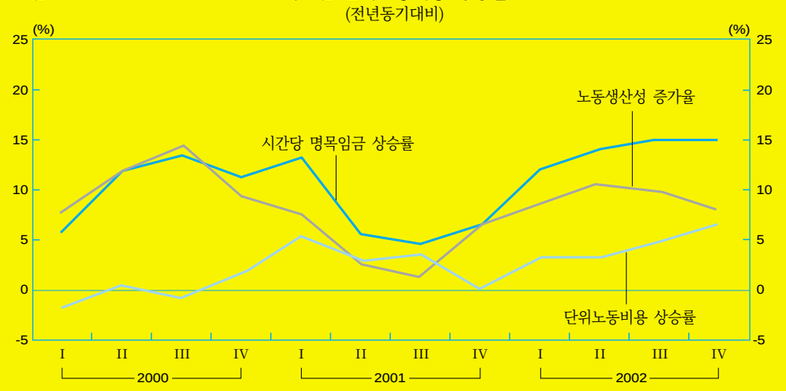
단위 : %

	2000	2001	2002 연간	2002 Ⅰ	2002 Ⅱ	2002 Ⅲ	2002 Ⅳ
명목임금[1]	8.0	5.1	11.2	9.4	11.1	11.2	13.8
(실질임금)[2]	(5.6)	(0.9)	(8.2)	(6.7)	(8.1)	(8.4)	(10.2)
<산업별>							
광업	7.4	3.9	11.1	14.9	7.8	8.3	13.5
제조업	8.6	5.8	11.9	7.3	10.7	11.9	17.3
전기가스수도업	6.7	15.3	13.1	7.1	6.9	25.5	12.6
건설업	8.0	-0.9	10.2	9.9	8.6	9.0	12.9
도소매음식숙박업	8.1	9.7	10.1	11.4	11.2	10.2	7.9
운수창고통신업	12.1	1.9	8.4	4.7	8.3	9.2	10.8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6.4	5.1	10.4	8.1	13.3	8.9	11.4
사회및개인서비스업	6.7	3.0	12.4	10.0	11.2	13.8	14.4
<내역별>							
정액급여	7.2	6.3	12.1	11.9	12.0	11.6	12.7
초과급여	14.1	-1.6	-3.9	-8.2	-2.8	-3.3	-1.4
특별급여	8.5	3.4	13.4	2.3	12.9	14.7	22.2
제조업시간당명목임금[3]	10.1	8.1	13.2	12.0	14.0	15.0	15.0
제조업노동생산성[4]	10.2	4.9	9.1	8.6	10.5	9.9	7.9
제조업단위노동비용[5]	0.0	3.0	3.7	3.2	3.2	4.5	6.6

주 : 1) 비농림어업,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제조업명목임금÷근로시간
4) 제조업 불변GDP÷(취업자수×근로시간)
5) 제조업 시간당명목임금÷노동생산성

한편 製造業 單位勞動費用은 3.7%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합리화 투자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의 상승세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된 데 기인하였다.

<그림 Ⅱ-`17>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3. 물가

소비자물가 전년보다 오름세 둔화

2002년중 消費者物價는 연평균 2.7%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처럼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賃金上昇勢가 확대되고 住宅價格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았던 데다 원貨換率 하락 등으로 공업제품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公共料金이 이례적으로 인하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먼저 賃金은 2002년중 11.2% 상승하여 전년(5.1%)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부동산가격은 주택매매가격이 전년(9.9%)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16.4%나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중 집세 상승률이 전년수준(4.1%)을 상회하는 5.8%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 · 4분기중 달러당 1,300원을 상회하던 원貨換率이 2 · 4분기 이후 1,200원 내외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고 國際油價도 12월 들어 이라크 전쟁 위험이 고조되기까지는 대체로 배럴당 2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연중 工業製品價格 상승은 전년(2.6%)보다 낮은 1.7%에 그쳤다. 또한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하여 온 公共料金이 2002

2장 2003.5.16 5:6PM 페이지42

년에는 정부의 인하시책에 힘입어 이동통신요금, 건강보험수가 등이 하향 조정된 데다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도시가스료가 인하된 데 힘입어 예년과는 달리 1.3% 하락하였다.

연중 소비자물가 변동추이를 기간별로 보면 10월까지는 공공요금 인하, 석유류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2%대에 머물렀으나 11월 이후에는 農産物價格 및 個人서비스料金의 계절적인 오름세에 더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石油類價格 인상 및 일부 公共料金 상향조정이 가세하여 3%대 중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우선 農畜水産物價格은 호우 ·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채소류 및 과실류의 작황부진,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일부 축산물의 공급부진 등으로 6.2% 상승하여 전년(6.3%)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연중의 농축수산물가격 변동추이를 보면 잦은 황사 등 氣象惡化에 따른 과실 · 채소류 출하 부진, 광우병 파동 등으로 전년중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든 일부 畜産物의 供給不振 등에 기인하여 5월까지 높은 오름세를 보인 후 6~7월에는 기상여건 호조로 채소류 등의 출하가 늘어나 상승세가 낮아졌으나 8~9월중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다시 크게 높아졌다. 10월 들어 수확기 출하 증가로 상승률이 일시 둔화되었으나 11월 이후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류가격이 급등하는 등 오름세가 다시 높아졌다.

工業製品價格은 원화환율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2.6%)보다 둔화된 1.7% 상승에 그쳤다. 연중 공업제품가격 추이를 보면 國際油價가 12월 들어 이라크 전쟁 위험이 고조되기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데다 2 · 4분기 이후 원貨換率 하락의 영향이 가세하여 3 · 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1%대에서 안정되었다. 다만 4 · 4분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石油類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상당폭 높아졌다.

서비스價格은 不動産價格 급등의 영향으로 집세 오름세가 확대되고 교육비 외식비 등 일부 個人서비스料金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료 건강보험수가 등 公共料金이 인하됨에 따라 전년(4.6%)에 비해 낮은 2.8% 상승에 머물렀다. 연중의 서비스價格 추이를 보면 집세 및 개인서비스요금이 상반기중 크게 상승하였으나 공공요금 인하도 도시가스 및 이동전화료(2월), 건강보험수가(4월), LM 통화료(6월), 전기료(7월) 등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되어 등락이 상쇄되면서 연중 2%대 후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根源인플레이션도 서비스가격의 오름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연평균 상승률이 2001년 3.6%에서 3.0%로 낮아졌다. 특히 根源인플레이션의 연중 변동추이를 보면 서비스가격과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가격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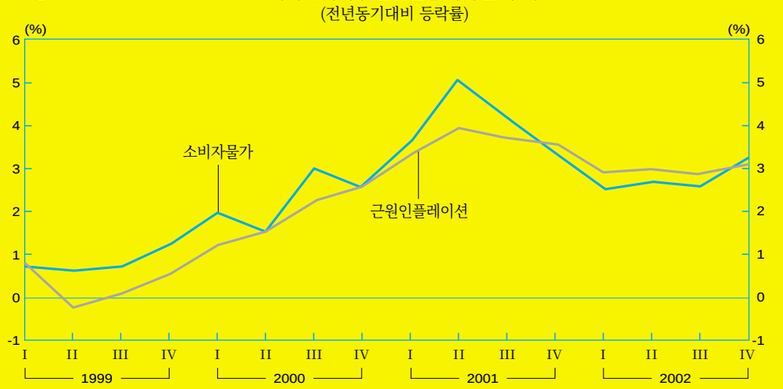
<표 Ⅱ-`8> 소비자물가 등락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가중치	2000	2001	2002 연간	2002 Ⅰ	2002 Ⅱ	2002 Ⅲ	2002 Ⅳ
소비자물가	<1000.0>	2.3	4.1	2.7	2.5	2.7	2.6	3.3
		(2.8)	(3.2)	(3.7)	(1.6)	(0.8)	(0.9)	(0.3)
농축수산물	<107.4>	1.9	6.3	6.2	8.5	6.9	4.6	5.2
		(-2.3)	(9.5)	(6.9)	(5.7)	(0.5)	(6.0)	(-5.1)
공업제품	<342.9>	1.6	2.6	1.7	0.1	1.3	1.6	3.5
		(2.4)	(0.0)	(4.1)	(1.1)	(1.6)	(0.2)	(1.2)
석유류	<57.9>	11.0	4.2	-0.8	-6.9	-2.1	-1.1	7.4
		(9.3)	(-9.4)	(10.5)	(2.0)	(5.6)	(-1.3)	(4.1)
서비스	<549.7>	2.9	4.6	2.8	2.9	2.7	2.8	2.7
		(4.3)	(4.0)	(2.8)	(1.0)	(0.6)	(0.4)	(0.8)
집세	<131.4>	-0.5	4.1	5.8	6.0	5.9	5.7	5.3
		(2.2)	(5.7)	(4.8)	(1.1)	(1.7)	(1.1)	(0.8)
공공요금	<150.9>	7.1	7.5	-1.3	-0.4	-1.6	-1.9	-1.3
		(9.1)	(3.7)	(-0.8)	(-1.2)	(-0.6)	(-0.1)	(1.0)
개인서비스	<267.4>	2.0	3.1	3.7	3.2	3.6	3.9	3.8
		(2.6)	(3.4)	(3.9)	(2.3)	(0.6)	(0.5)	(0.6)
근원인플레이션[1]	<883.5>	1.9	3.6	3.0	2.9	3.0	2.9	3.1
		(2.9)	(3.6)	(3.1)	(1.2)	(0.6)	(0.5)	(0.7)

주 : 1)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
2) ( )내는 전기말월대비

<그림 Ⅱ-`18>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 추이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2장 2003.5.16 5:6PM 페이지44

정된 점을 반영하여 연초 이래 3% 수준에서 별다른 등락을 보이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2년중 연평균 根源인플레이션率이 消費者物價 上昇率을 소폭 상회하였는데 이는 根源인플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되는 石油類價格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생산자물가 안정세 지속

2002년중 生産者物價는 연평균 1.6% 상승에 그쳐 전년(1.9%)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農林水産品價格이 큰 폭 상승하고 서비스價格의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工産品價格이 안정된 데다 電力 · 水道 및 가스料金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연중의 生産者物價 변동추이를 기간별로 보면 1 · 4분기에는 농림수산품가격의 높은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석유 · 화학제품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2 · 4분기에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산품가격의 상승전환과 서비스가격의 상승폭 확대로 생산자물가가 오름세로 반전되었으나 상승률은 1%대에서 머물렀으며 이러한 안정세는 3 · 4분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4 · 4분기에는 농림수산품가격이 한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데다 石油製品價格도 상승함에 따라 오름세가 크게 높아졌다.

생산자물가 동향을 品目別로 보면 우선 農林水産品價格은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출하 부진, 일부 축산물의 공급부진 등으로 상반기까지 대체로 높은 오름세를 보인 후 3 · 4분기 들어 일시 둔화되었으나 4 · 4분기에는 한파에 따른 출하 부진 등으로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工産品價格은 1.1% 상승에 머물러 전년(1.5%)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연중의 공산품가격 추이를 보면 1 · 4분기까지는 석유 · 화학제품, 반도체, 영상 · 음향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2 · 4분기 들어 석유 · 화학제품가격이 반등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철강업체 감산에 따른 공급부진 등으로 금속제품가격이 올라 오름세로 반전하였으나 상승세는 3 · 4분기까지 완만하였다. 다만 4 · 4분기 들어서는 특별소비세 환원에 따른 승용차 가격 인상, 석유제품가격의 큰 폭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높아졌다.

電力 · 水道 및 都市가스 料金은 전년(7.3%)의 높은 상승에서 2.3%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부산 · 대구 · 광주 등 일부 지방의 상수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초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인하되고 연중반 전기료도 인하된 데 기인하였다.

서비스價格은 전년(2.4%)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높아져 2.8% 상승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 · 4분기에는 건설업 노임단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항공여객료 등이 인하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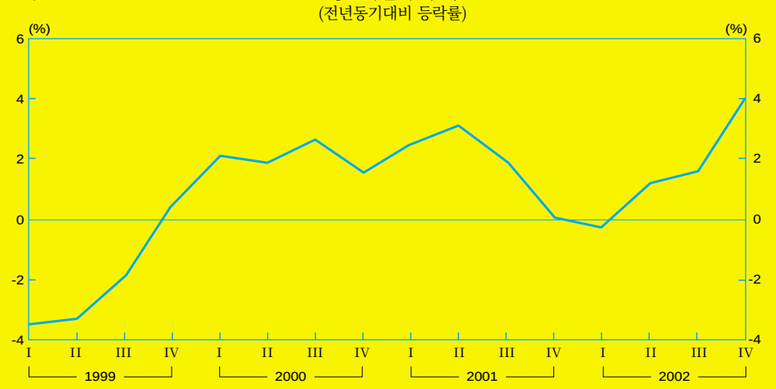
<표 Ⅱ-`9> 생산자물가 등락률[1]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가중치	2000	2001	2002 연간	2002 Ⅰ	2002 Ⅱ	2002 Ⅲ	2002 Ⅳ
생 산 자 물 가	<1000.0>	2.0	1.9	1.6	-0.2	1.2	1.5	4.0
		(1.7)	(-0.7)	(4.6)	(1.7)	(1.4)	(0.5)	(1.0)
농 림 수 산 품	<66.1>	-2.6	1.0	4.5	4.9	3.6	1.8	8.2
		(-7.9)	(6.1)	(9.1)	(5.9)	(-0.2)	(0.0)	(3.3)
공 산 품	<664.9>	2.4	1.5	1.1	-1.5	0.4	1.3	3.9
		(2.2)	(-2.3)	(4.9)	(1.7)	(1.7)	(0.6)	(0.7)
전 력 수 도 가 스	<32.8>	8.5	7.3	-2.3	-1.9	-2.9	-3.0	-1.5
		(7.9)	(3.5)	(-1.0)	(-2.7)	(-0.2)	(0.5)	(1.4)
서 비 스	<231.8>	1.5	2.4	2.8	1.9	3.0	3.0	3.5
		(2.0)	(1.6)	(3.7)	(1.4)	(1.0)	(0.4)	(0.9)

주 : 1) ( )내는 전기말월대비

<그림 Ⅱ-`19> 생산자물가 추이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2장 2003.5.16 5:6PM 페이지46

라 2%대에 머무는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 · 4분기 이후에는 원貨換率 하락에 따른 기계리스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점포 · 사무실 賃貸料 인상이 지속되고 외항 및 항공화물 운임, 버스요금 등 運輸서비스部門의 가격도 크게 올라 상승률이 3%대로 높아졌다.

수출입 물가 모두 큰 폭 하락

2002년중 輸出物價(원貨기준)는 연평균 7.0% 하락하여 전년(-3.8%)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주요 國際原資材價格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진한 데다 생산업체간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원貨換率도 강세를 나타낸 데 주로 기인하였다.

연중 輸出物價 動向을 살펴보면 3 · 4분기까지 반도체 등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시세가 약세를 지속하고 원화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8% 내외의 큰 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4 · 4분기 들어서는 원유 등 주요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원화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02년중 輸入物價(원貨기준)는 연평균 6.2% 하락하여 전년의 3.5% 상승에서 큰 폭의 내림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원자재 뿐만 아니라 자본재 및 소비재도 需要不振과 원貨 강세로 가격이 전년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데 기인한 것이다.

연중의 輸入物價 動向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3 · 4분기까지 8%내외의 큰 폭 하락세를 지속한 후 4 · 4분기에는 원화환율의 안정,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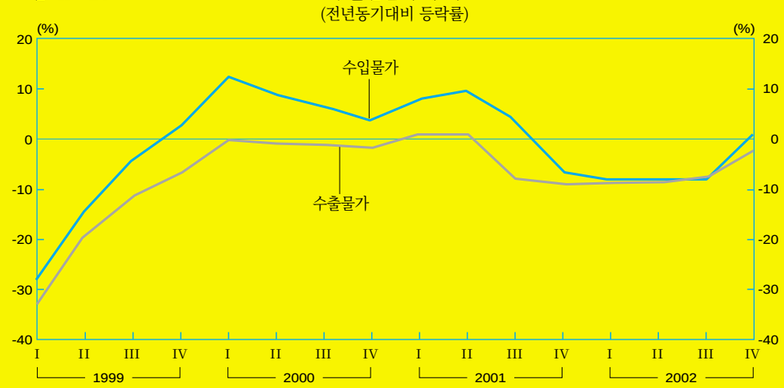
<표 Ⅱ-`10> 수출입물가 등락률[1]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2000	2001	2002 연간	2002 Ⅰ	2002 Ⅱ	2002 Ⅲ	2002 Ⅳ
수 출 물 가	-1.0	-3.8	-7.0	-8.7	-8.6	-7.9	-2.2
	(4.2)	(-11.6)	(-1.1)	(7.6)	(-8.5)	(0.5)	(-0.1)
수 입 물 가	7.6	3.5	-6.2	-8.5	-8.5	-8.0	0.8
	(5.3)	(-8.5)	(2.9)	(6.3)	(-4.9)	(1.7)	(0.1)

주 : 1) ( )내는 전기말월대비. 2000년은 1995년기준 수출입물가지수, 2001년 이후는 2000년기준 수출입물가지수 기준

<그림 Ⅱ-`20> 수출입물가 추이[1]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주 : 1) 2000년 이전은 1995년기준 수출입물가지수, 2001년 이후는 2000년기준 수출입물가지수 기준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큰 폭 상승

2002년중 住宅賣買價格 및 傳貰價格(전기말월대비)은 전년에 이어 크게 상승하였다. 우선 住宅賣買價格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데다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가계대출 확대로 주택구입자금 차입이 용이해진 한편 서울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住宅價格의 上昇期待가 확산됨으로써 연평균 16.4%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주도하였다. 매매가격의 연중 동향을 보면 1 · 4분기중 큰 폭 상승

<표 Ⅱ-`11> 부동산가격 등락률 추이
(전기말월대비)

단위 : %

	2000	2001	2002 연간	2002 Ⅰ	2002 Ⅱ	2002 Ⅲ	2002 Ⅳ
주택매매가격(전도시)	0.4	9.9	16.4	7.6	2.1	5.2	0.8
(서 울)[1]	4.2	19.3	30.8	15.0	2.3	11.7	-0.5
주택전세가격(전도시)	11.1	16.4	10.1	7.3	1.6	2.6	-1.6
(서 울)[1]	12.1	23.4	11.4	11.2	1.8	3.9	-5.3
토 지 가 격(전 국)	0.7	1.3	9.0	1.8	1.3	3.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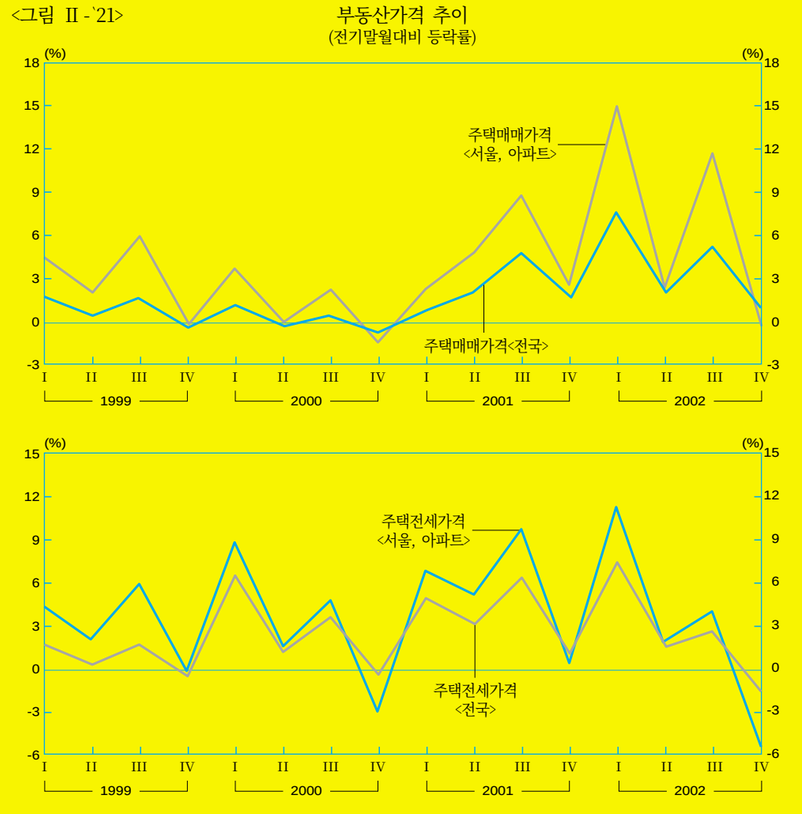
주 : 1) 아파트 기준

2장 2003.5.16 5:6PM 페이지48

한 후 2 · 4분기에 일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3 · 4분기 들어 서울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이러한 가격상승세가 수도권 및 신도시지역으로 확산되어 다시 큰 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억제노력과 함께 양도소득세 강화,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정부의 不動産市場 安定對策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傳貰價格은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영향 등으로 연평균 10.1% 상승하였는데 기간별로 보면 주택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3 · 4분기까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4 · 4분기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한편 전년중 안정세를 유지하던 土地價格은 2002년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그림 Ⅱ-`21> 부동산가격 추이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추진,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어 연중 9.0%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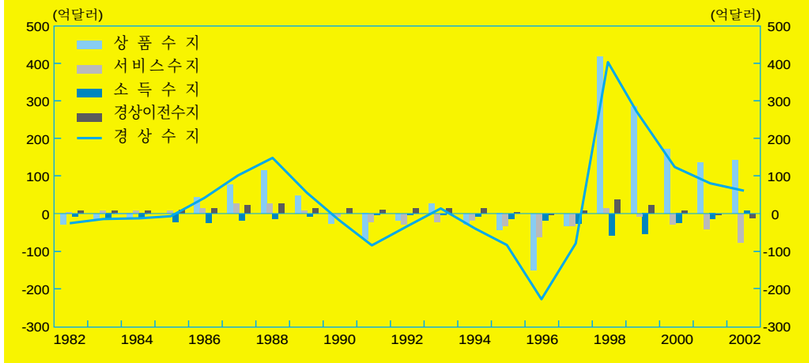
4. 국제수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2002년중 經常收支는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1998년 이래의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흑자규모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전년의 82억달러에서 61억달러로 줄어들었다.

항목별로 보면 商品收支는 전년의 135억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142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는 민간소비의 확대와 수출호조, 설비투자 회복 움직임 등으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다소 회복되면서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경비와 사업서비스료 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의 38억달러에서 75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經常移轉收支도 내국인의 해외송금 증가로 전년의 2억달러에서 11억달러로 적자폭이 늘어났다. 한편 所得收支는 대외이자지급 축소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의 12억달러 적자에서 5억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그림 Ⅱ-`22> 경상수지 추이



2장 2003.5.16 5:6PM 페이지50

<표 Ⅱ-`12> 경상수지 요약표
(국제수지 기준)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A)	2002p(B)	증감액(B-A)
경상수지	244.8	122.4	82.4	60.9	-21.5
상품·서비스수지	277.2	139.8	96.6	67.2	-29.5
상품수지	283.7	168.7	134.9	141.8	6.9
수출	1,451.6	1,759.5	1,512.6	1,625.5	112.9
수입	1,167.9	1,590.8	1,377.7	1,483.7	106.0
서비스수지	-6.5	-28.9	-38.3	-74.6	-36.3
소득수지	-51.6	-24.2	-12.0	4.5	16.5
경상이전수지	19.2	6.8	-2.3	-10.8	-8.5

수출 2·4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

2002년중 輸出(通關基準, FOB가격)은 1천 625억달러로 전년의 12.7% 감소에서 8.0% 증가로 돌아섰다.

분기별로는 1·4분기까지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WTO 가입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 등에 따른 대중국 수출호조와 선진국에 대한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신장세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品目別로 보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승용차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크게 늘어났으나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은 부진하였다.

먼저 무선통신기기는 중국 EU 등에서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휴대용 전화기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3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반도체는 DDR D램 등 고가제품의 비중 상승으로, 컴퓨터는 LCD모니터와 부품의 호조로 전년의 감소에서 각각 16% 내외의 증가로 돌아섰다. 승용차는 주시장인 미국에 대한 중대형 차량 수출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가전제품도 고화질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이 밖에 기계류는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건설중장비 및 섬유기계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로 반전하였으며 선박도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섬유류와 신발류는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석유제품은 수출물량의 내수전환으로 전년에 이어 부진하였고 철강·금속제품도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로 돌아서는 데 그쳤다.

<표 Ⅱ-`13>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통관 기준)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IT제품	39.3	29.2	31.1	32.0	-26.2	27.0	20.0	30.0
반도체	10.8	13.1	38.0	15.1	-45.2	9.5	16.6	10.2
컴퓨터	99.2	7.2	40.7	8.4	-24.0	7.3	15.6	7.8
무선통신기기	112.5	3.2	42.0	3.8	23.0	5.3	34.6	6.7
IT이외제품	-0.5	70.8	15.3	68.0	-6.3	73.0	3.5	70.0
승용차	15.3	6.6	17.9	6.4	3.1	7.6	16.3	8.2
선박	-6.5	5.2	9.9	4.8	17.9	6.4	10.0	6.6
기계류	3.4	5.6	25.8	5.9	-2.9	6.5	10.8	6.7
철강·금속제품	-7.3	7.2	10.2	6.6	-11.7	6.7	2.8	6.3
화공품	4.3	6.5	29.1	7.0	-10.9	7.2	9.4	7.3
가전제품	23.2	4.0	22.7	4.0	-4.7	4.5	14.1	4.7
섬유류	3.5	11.4	7.6	10.3	-14.0	10.1	-2.3	9.1
(섬유사)	-7.7	1.0	10.0	0.9	-17.6	0.8	9.7	0.9
(직물)	1.9	5.6	6.6	4.9	-17.7	4.7	-5.6	4.1
(의류)	4.6	3.4	3.2	2.9	-14.4	2.9	-8.2	2.4
타이어·튜브	-3.7	1.0	-4.3	0.8	0.3	0.9	6.4	0.9
신발류	-1.4	0.6	-0.1	0.5	-12.1	0.5	-17.8	0.4
석유제품	25.9	4.0	61.7	5.4	-14.5	5.3	-18.5	4.0
총수출	8.6	[1,437]	19.9	[1,723]	-12.7	[1,504]	8.0	[1,625]

주 : [ ]내는 수출금액(억달러)

수출품목을 加工段階別로 구분해 보면 素材 및 部品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전년의 22.6% 감소에서 9.7%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完製品은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컴퓨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의류 신발류 등의 부진 지속으로 7.3%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소재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한 반면 완제품의 비중은 낮아졌다.

<표 Ⅱ-`14>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소재 및 부품	10.4	46.6	21.5	47.5	-22.6	42.1	9.7	42.8
완제품	14.7	49.7	22.2	50.4	-3.0	56.0	7.3	55.6
기타	-41.7	3.6	-32.6	2.1	-20.2	1.9	-7.9	1.6
총수출	8.6	100.0	19.9	100.0	-12.7	100.0	8.0	100.0

2장 2003.5.16 5:6PM 페이지52

수입 증가로 반전

2002년중 輸入(通關基準, CIF가격)은 1천 521억달러로 전년의 12.1% 감소에서 7.8% 증가로 반전하였다.

분기별로는 1 · 4분기까지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 · 4분기 이후에는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消費財는 국내 소비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승용차 의류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크게 높은 21.8%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資本財도 반도체 기계류 등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의 19.7% 감소에서 10.4%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原資材는 철강재 화공품 등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이 석유제품 수출 부진에 따른 도입물량 감소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用途別로는 輸出用 輸入이 원유 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수준에 머물렀으나 內需用 輸入은 국내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12.7%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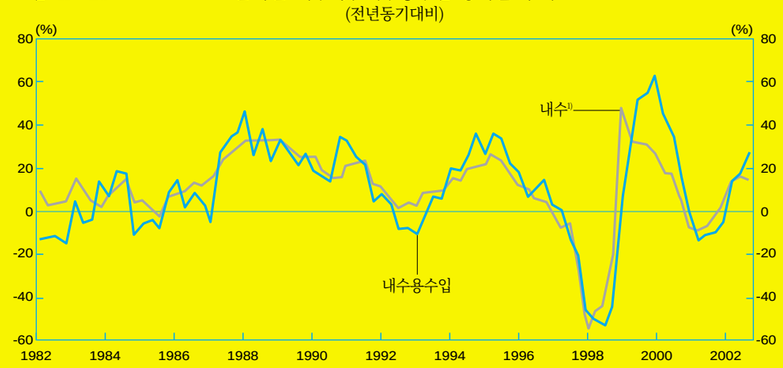
<표 Ⅱ-`15> 용도별 수입 추이
(통관 기준)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증가율	비 중
소비재	10.7	11.7	14.7	10.0	3.5	11.8	21.8	13.3
곡물	-7.9	1.9	5.1	1.5	3.7	1.8	5.4	1.8
내구소비재	-3.7	5.3	0.4	4.0	-3.2	4.4	24.8	5.1
금	-25.6	2.8	-33.1	1.4	-27.3	1.2	6.6	1.1
금이외	42.5	2.5	37.5	2.6	9.8	3.2	31.3	4.0
비내구소비재	48.8	1.4	57.0	1.6	21.3	2.2	33.0	2.7
원자재	25.6	47.8	37.9	49.2	-8.9	51.0	2.7	48.6
원유	31.5	12.3	70.6	15.7	-15.3	15.1	-10.1	12.6
철강	43.1	4.0	26.5	3.7	-16.3	3.6	24.6	4.1
화공품	22.9	8.2	20.8	7.4	-4.8	8.0	8.8	8.1
자본재	38.4	40.5	34.9	40.8	-19.7	37.2	10.4	38.1
전기 · 전자기기	46.7	26.4	36.7	27.0	-21.8	24.0	6.4	23.7
(컴퓨터)	122.6	3.4	76.5	4.6	-26.7	3.7	-6.9	3.3
(반도체)	31.2	13.4	24.1	12.4	-22.0	11.0	12.4	11.5
기계류	25.7	8.1	35.6	8.2	-18.2	7.6	15.8	8.2
수출용	23.8	46.7	29.1	45.0	-16.0	43.0	1.3	40.4
내수용	32.6	53.3	38.3	55.0	-8.9	57.0	12.7	59.6
총수입	28.4	[1,198]	34.0	[1,605]	-12.1	[1,411]	7.8	[1,521]

주 : [ ]내는 수입금액(억달러)

<그림 Ⅱ-`23> 분기별 내수 및 내수용수입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주 : 1) 명목 GDP중 최종소비지출 및 총자본형성의 합계(美달러貨표시 기준)

면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57.0%에서 59.6%로 상승하였다.

동남아 및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 확대

2002년중 수출입차(통관기준)를 地域別로 보면 對美 黑字가 늘어났으나 對日 赤字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先進國에 대한 적자폭이 전년의 5억달러에서 4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新興市場國에 대해서는 對中東 赤字가 줄어든 데다 동남아 및 중국에 대한 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의 99억달러에서 149억달러로 커졌다.

主要國別로 보면 美國에 대한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수출이 승용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됨에 따라 대미 흑자폭이 전년의 88억달러에서 98억달러로 확대되었다. 日本에 대해서는 전년에 이어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이 반도체 기계류 철강재 등을 중심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의 101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EU와는 수출이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의 호조로 주요 선진국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이 기계류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 흑자가 전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

新興市場國의 경우 中東地域에 대해서는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의 163억달러에서 134억달러로 적자가 크게 줄었다. 東南亞地域에 대해서는

2장 2003.5.16 5:6PM 페이지54

주요국의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의 103억달러에서 119억달러로 확대되었다. 또한 中國과도 의류 전자부품 농산물 등의 수입이 늘었으나 수출이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의 49억달러에서 64억달러로 흑자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 中南美地域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경제불안에 따른 수출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규모가 63억달러에서 51억달러로 축소되었다.

<표 Ⅱ-`16> 대선진국 및 대신흥시장국 수출입차[1] 추이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	2002
대선진국	17.7	10.8	-5.4	-45.2
(미국)	45.5	83.7	88.3	97.7
(일본)	-82.8	-113.6	-101.3	-147.1
(EU)	76.1	76.4	47.1	45.9
대신흥시장국	221.6	107.1	98.8	148.6
(동남아)	170.0	147.3	103.0	118.9
(중국)	48.2	56.6	48.9	63.5
(중동)	-83.0	-182.1	-162.5	-133.8
(중남미)	57.8	61.1	62.9	51.2
전체수출입차	239.3	117.9	93.4	103.4

주 : 1) 통관기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2002년중 서비스收支는 여행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여 적자폭이 전년의 38억달러에서 75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旅行收支는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유학 · 연수 증가로 支給이 크게 늘어난데다 受入은 1999년 이래의 감소세를 지속하여 적자가 전년의 12억달러에서 38억달러로 확대되었다. 運輸收支는 화물운임수지가 악화되었으나 운항 및 항만경비수지가 개선되어 전년과 비슷한 24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 밖에 기타서비스수지는 기업의 광고 마케팅 경영컨설팅 관련 사업서비스료 지급 증가로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Ⅱ-`17> 항목별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	2002p
서비스수지	-6.5	-28.9	-38.3	-74.6
여행	19.6	-3.0	-12.3	-37.7
운수	14.9	28.1	24.7	23.9
기타	-41.0	-54.0	-50.7	-60.8
특허권등 사용료	-22.1	-25.3	-21.3	-21.5
사업서비스료	-22.4	-33.4	-31.2	-44.5
기타[1]	3.5	4.7	1.9	5.2

주 : 1) 통신 · 보험 · 정부서비스 등

소득수지 흑자 전환

2002년중 所得收支는 전년의 12억달러 적자에서 5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연중 총외채 규모가 늘어났으나 국제금리가 하락한 데 힘입어 대외이자지급이 줄어들면서 投資所得收支가 전년의 17억달러 적자에서 균형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經常移轉收支는 유학 · 연수 관련 해외송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의 2억달러에서 11억달러로 확대되었다.

<표 Ⅱ-`18> 항목별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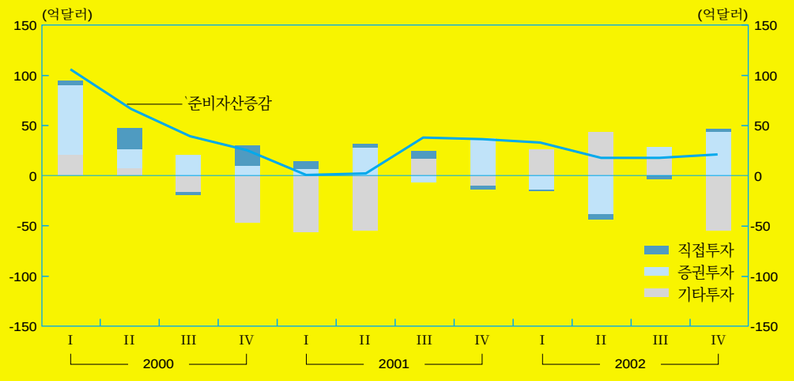
	1999	2000	2001	2002p
소득수지	-51.6	-24.2	-12.0	4.5
급료및임금	4.8	5.3	5.0	4.7
투자소득	-56.4	-29.5	-16.9	-0.2
수입	27.2	57.9	60.8	62.9
지급	83.6	87.5	77.8	63.1
경상이전수지	19.2	6.8	-2.3	-10.8

자본수지 소폭 유입초로 전환

2002년중 資本收支는 외국인 直接投資 및 株式投資 資金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 무역관련신용 도입 및 민간기업의 해외중장기채권 발행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의 33억달러 流出超에서 15억달러 流入超로 돌아섰다.

2장 2003.5.16 5:6PM 페이지56

<그림 Ⅱ-`24> 자본유입 추이



<표 Ⅱ-`19> 항목별 자본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	2002p
자 본 수 지	20.4	121.1	-32.7	15.2
A. 투 자 수 지	24.3	127.3	-25.4	26.1
직 접 투 자 수 지	51.4	42.8	11.1	-7.0
내국인투자(자산)	-42.0	-50.0	-24.2	-26.7
외국인투자(부채)	93.3	92.8	35.3	19.7
증 권 투 자 수 지	86.8	120.0	65.8	1.8
내국인투자(자산)	16.8	0.1	-50.6	-37.3
외국인투자(부채)	69.9	119.9	116.4	39.1
(주 식 투 자)[1]	120.7	130.9	102.7	1.9
(채 권 투 자)	-50.8	-11.1	13.8	37.2
기 타 투 자 수 지	-113.8	-35.6	-102.3	31.3
내국인투자(자산)	-26.1	-22.9	71.0	-24.0
외국인투자(부채)	-87.8	-12.7	-173.3	55.4
(차 입)	-134.5	-48.6	-132.1	53.4
(무 역 관 련 신 용)	45.9	42.8	-29.7	6.6
B. 기 타 자 본 수 지	-3.9	-6.2	-7.3	-10.9
준 비 자 산 증 감[2]	-229.8	-237.7	-75.8	-118.0

주 : 1) 해외 주식예탁증서 발행금액 포함 2) (-)는 증가를 의미

주요 항목별로 보면 直接投資收支는 외국인 直接投資資金 유입이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16억달러 감소한 20억달러에 그침에 따라 7억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證券投資收支는 민간기업의 해외중장기채권 발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순유입 규모가 전년의 103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의 66억달러 유입초에서 2억달러 유입초로 크게 악화되었다. 其他投資收支는 전년의 102억달러 유출초에서 31억달러 유입초로 반전되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입초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말의 국내 외화대출 용도제한 폐지에 따른 외화대출 수요 확대 등으로 예금은행의 해외차입금이 급증한 데다 무역관련신용 도입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其他資本收支는 해외이주비 지급 등으로 11억달러 流出超를 기록하였다.

總外債(총대외지불부담 기준)는 연말 현재 1천 310억달러로 전년말대비 122억달러 증가하였으나 원화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명목 GDP에 대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27.5%를 나타내었다. 長期外債는 34억달러 증가하여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말 65.5%에서 62.0%로 하락하였으며 短期外債는 저금리 엔화자금에 대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외화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확대된 데다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88억달러 증가하여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말 34.5%에서 38.0%로 상승하였다.

<표 Ⅱ-`20> 총외채[1] 추이
(기간말 기준)

단위 : 억달러, %

	2000	2001(A)	2002p 3월	2002p 6월	2002p 9월	2002p 12월(B)	B-A
총 외 채	1,317	1,188	1,182	1,245	1,289	1,310	122
	<28.5>	<27.8>				<27.5>	
장 기 외 채	837	778	773	771	764	812	34
	(63.6)	(65.5)	(65.4)	(61.9)	(59.3)	(62.0)	
단 기 외 채	479	410	410	474	525	498	88
	(36.4)	(34.5)	(34.6)	(38.1)	(40.7)	(38.0)	

주 : 1) 총대외지불부담 기준 2) < >내는 명목GDP대비 비율
3) ( )내는 구성비

2장 2003.5.16 5:6PM 페이지58

제3절 금융시장

연중 金融市場에서는 이라크 전쟁 가능성,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 해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4월 이후 장기시장금리 및 주가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원화는 美달러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1.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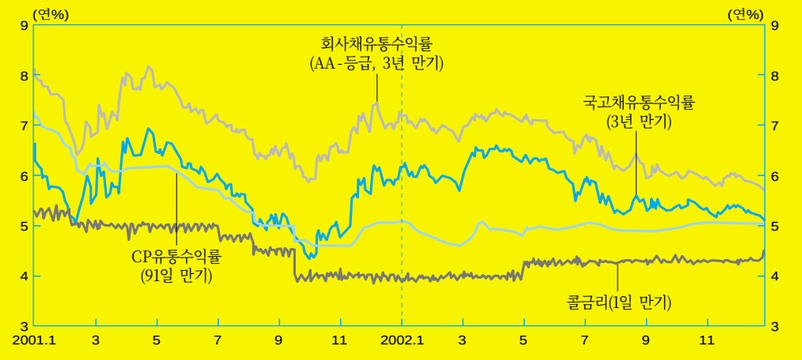
시장금리 하락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長期市場金利는 경기호전,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3~4월중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국고채 및 회사채 공급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연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長期市場金利는 경기호전, 국내외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통합재정수지 흑자 등으로 국고채 및 회사채 발행물량이 감소하고 물가도 안정됨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반락하여 7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8월부터는 금리의 저점도달 인식으로 일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이라크 전쟁 우려 등으로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대체로 5.3~5.5% 범위내에서 등락하다가 12월 들어 북한 핵문제의 영향과 2003년 1월중 국채 발행물량 축소계획 등으로 추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3년만기 국고채 및 회사채(AA-등급) 유통수익률이 모두 연중 최저수준인 5.11%, 5.68%를 기록하여 전년말보다 0.80% 포인트, 1.36% 포인트 각각 하락하였다.

短期市場金利는 콜금리 목표의 소폭 인상 이후 그대로 유지된 데다 자금운용의 단기화 성향이 지속됨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콜금리(익일물)는 4월말까지 4%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였으나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인상한 5월 7일 이후 연말까지는 4.25%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CP(91일 만기) 유통수익률은 경기회복 기대,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인상 등으로 3월과 5월중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이 꾸

<그림 Ⅱ-'25> 주요 시장금리 추이



준히 증가하는 단기성수신 자금을 주로 CP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말 현재 CP 유통수익률은 전년말보다 0.04% 포인트 낮은 5.03%를 기록하였다.

장단기금리차 및 회사채 리스크프리미엄 축소

長短期金利差(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물 CD 유통수익률)는 3~4월중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장기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계속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 현재 장단기금리차는 전년말의 1.05% 포인트에서 0.21% 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內外金利差(1년만기 통안증권 유통수익률 - 1년만기 미국 재무성증권 금리)는 연초 국내금리의 하락과 미국금리의 소폭 상승으로 다소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이후 미국 경기회복 불투명에 따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페더럴펀드 금리 목표 인하, 이라크 전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매입수요 증대 등으로 미국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내외금리차가 전년말의 3.17% 포인트에서 3.67% 포인트로 확대되었다.

會社債 리스크프리미엄(AA-등급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장기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상승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감소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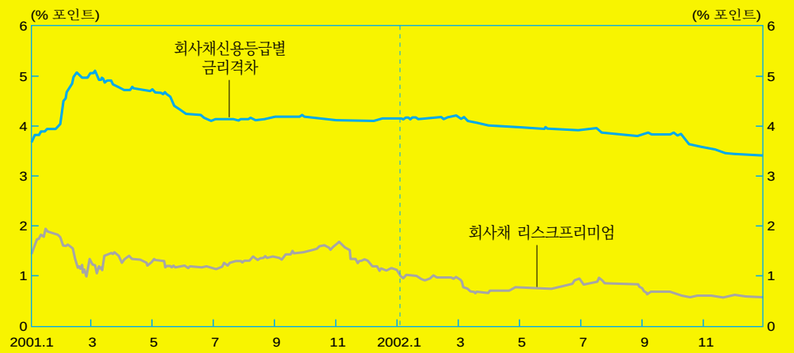
2장 2003.5.16 5:6PM 페이지60

<그림 Ⅱ-`26> 장단기금리차[1] 및 내외금리차[2] 추이

주 : 1)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물 CD 유통수익률
2) 1년만기 통안증권 유통수익률 - 1년만기 미국 재무성증권 금리

힘입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 현재 회사채 리스크프리미엄은 전년말의 1.13% 포인트에서 그 절반수준인 0.57% 포인트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장기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기관투자가의 매입수요가 저등급 회사채로 확산되면서 회사채 신용등급

<그림 Ⅱ-`27> 회사채 리스크프리미엄[1] 및 신용등급별 금리격차[2] 추이



주 : 1) AA-등급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 3년만기 국고채유통수익률
2) BBB-등급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 AA-등급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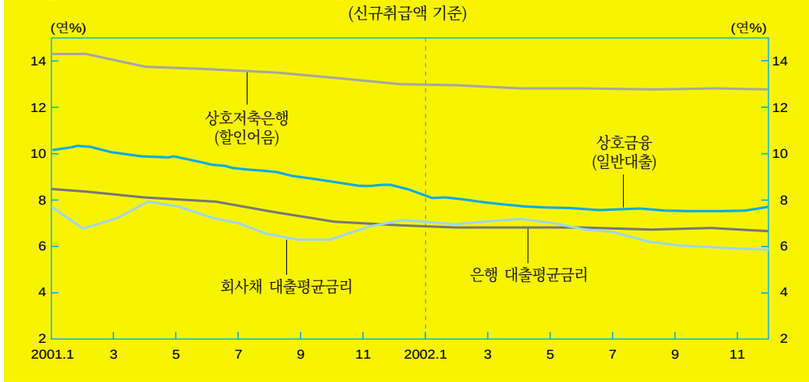
별 금리격차(BBB-등급 - AA-등급)도 꾸준히 축소되어 연말에는 전년말의 4.16% 포인트에서 3.40% 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기관 여신금리 소폭 하락

金融機關 與受信金利는 장기시장금리 하락, 시중자금사정 개선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銀行 貸出平均金利(신규취급액 기준)는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설비투자회복 지연, 기업수익 증대 등으로 대기업의 차입수요가 크지 않았던 데다 은행들이 우량거래처에 대한 대출확대 경쟁을 벌임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여 12월에는 전년 동월의 6.91%에서 6.65%로 낮아졌다. 차입주체별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한 반면 가계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12월에는 전년 동월의 7.26%에서 7.31%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Ⅱ-`28> 금융기관 대출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은행신탁 등 非銀行金融機關의 貸出金利(신규취급액 기준)도 연중 은행 대출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12월중 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

2장 2003.5.16 5:6PM 페이지62

금리는 7.69%, 8.81%로 전년동월대비 0.97% 포인트, 0.75% 포인트 각각 떨어졌으며 상호저축은행 할인어음금리는 0.29% 포인트 낮아진 12.74%를 나타내었다.

<표 Ⅱ-`21> 금융기관 대출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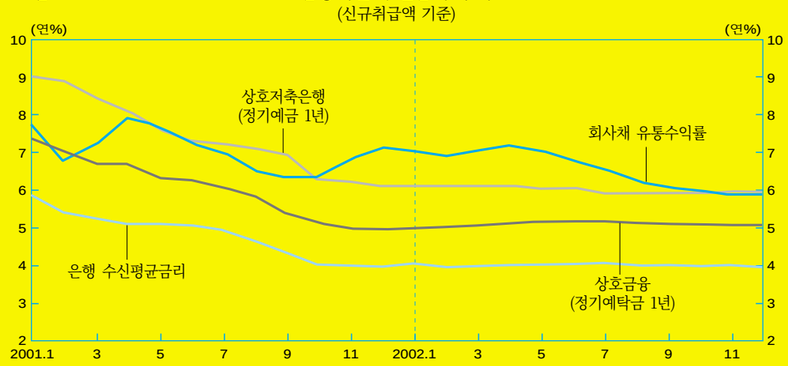
단위 : 연%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3월	6월	9월	12월
은행대출평균금리	8.41	6.91	6.79	6.78	6.71	6.65
대기업	8.66	6.73	6.44	6.35	6.63	6.27
중소기업	7.82	6.76	6.69	6.57	6.50	6.51
가계	9.48	7.26	7.02	7.31	7.08	7.31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호저축은행(할인어음)	14.26	13.03	12.87	12.83	12.79	12.74
상호금융(일반대출)	10.72	8.66	7.88	7.58	7.46	7.69
신용협동조합(일반대출)	11.28	9.56	8.86	8.98	8.60	8.81
은행신탁대출	10.65	7.82	7.98	7.78	7.95	7.34
회사채유통수익률[1]	8.12	7.11	7.05	6.76	6.06	5.88

주 : 1) AA-등급 3년만기 회사채 기준

銀行 受信平均金利(신규취급액 기준)는 일부 은행이 콜금리 목표 인상의 영향, 원화유동성 비율 제고 필요성 등으로 정기예금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도 하였으나 평균적으로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12월에는 전년 동월(3.98%)과 거의 같은 수준인 3.97%를 기록하였다.

<그림 Ⅱ-`29> 금융기관 수신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非銀行金融機關 受信金利(확정금리부 상품의 신규취급액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이 소폭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금리(1년 만기)는 다소 상승하였다. 12월중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금리(1년 만기)는 5.95%로 전년 동월의 6.09%보다 0.14% 포인트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금리(1년 만기)는 자금유치를 위한 수신경쟁 등으로 전년 12월의 4.94%, 5.52%에서 5.05%, 5.59%로 각각 상승하였다.

<표 Ⅱ-`22> 금융기관 수신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 연%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3월	6월	9월	12월
은행수신평균금리	5.95	3.98	3.99	4.05	4.01	3.97
정기예금(1년이상~2년미만)	7.33	4.97	4.95	4.97	4.93	4.85
(6개월미만)	6.25	4.32	4.36	4.40	4.40	4.33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1]						
상호저축은행(정기예금1년)	9.16	6.09	6.09	6.02	5.94	5.95
상호금융(정기예탁금1년)	7.43	4.94	5.03	5.15	5.09	5.05
신용협동조합(정기예탁금1년)	8.02	5.52	5.55	5.73	5.58	5.59
회사채유통수익률	8.12	7.11	7.05	6.76	6.06	5.88

주 : 1) 확정금리부 상품 기준

한편 12월중 은행의 預貸金利差는 대출금리의 하락세 및 수신금리의 안정세로 전년 동월의 2.93% 포인트에서 2.68%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표 Ⅱ-`23> 은행 예대금리차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 연%, %포인트

	2000.12월	2001.12월	2002			
			3월	6월	9월	12월
대출평균금리(A)	8.41	6.91	6.79	6.78	6.71	6.65
예금평균금리(B)	5.95	3.98	3.99	4.05	4.01	3.97
예대금리차(A-B)	2.46	2.93	2.80	2.73	2.70	2.68

2장 2003.5.16 5:6PM 페이지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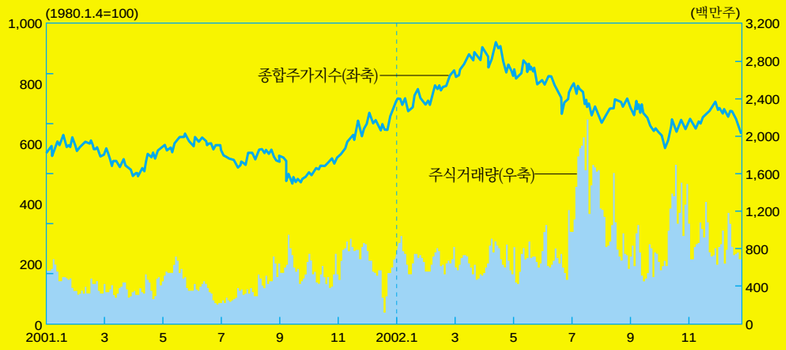
2. 자본시장

주가 4월 이후 하락 지속

株價는 4월 중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연중 거래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綜合株價指數는 전년 10월 이래의 상승세가 연초에도 이어져 4월 18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937.6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에 대한 우려 및 주가급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10월 10일에는 연중 최저수준인 584.0으로 떨어졌다. 그 후 미국주가 반등, 외국인 투자자금 재유입 등으로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지정학적 위험 증대,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말(693.7)보다 9.5% 하락한 627.6을 기록하였다.

<그림 Ⅱ-`30> 종합주가지수 및 주식거래량 추이[1)]



주 : 1) 일별 기준

거래소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차익실현 및 손절매 매물, 개인투자자들의 저가주식(하이닉스 등) 매수 등으로 일평균 株式去來量이 전년의 4억 7천만주에서 8억 6천만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일평균 株式去來代金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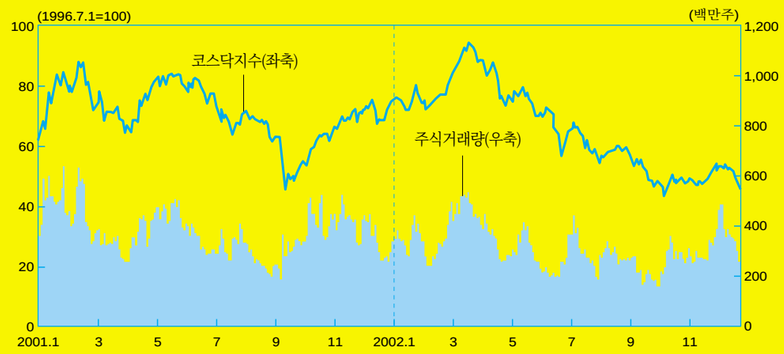
<표 Ⅱ-`24> 거래소 주식시장 동향

	2001	2002				
		연간	Ⅰ	Ⅱ	Ⅲ	Ⅳ
종합주가지수(기말기준)	693.7 (37.5)	627.6 (-9.5)	895.6 (29.1)	742.7 (7.1)	646.4 (-6.8)	627.6 (-9.5)
거 래 량(일평균, 만주)	47,191	85,724	67,417	70,472	108,778	95,099
거래대금(일평균, 10억원)	1,996.9	3,041.6	4,025.4	3,252.8	2,577.0	2,362.2

주 : ( )내는 전년말대비 등락률(%)

연중 코스닥지수는 종합주가지수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매우 부진하였다. 코스닥지수는 반도체 가격상승에 따른 기술주 선호 등에 힘입어 3월 하순에는 94.3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4월 이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내림세를 지속하여 10월 11일에는 코스닥시장 개설 이래 최저수준인 43.7로 하락하는 등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연말 현재 코스닥지수는 44.4로 전년말(72.2)에 비해 38.6% 하락하였다.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연중 일평균 주식거래량은 전년의 3억 8천만주에서 3억 2천만주로 줄어들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도 1조 7천억원에서 1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Ⅱ-`31> 코스닥지수 및 주식거래량 추이[1)]



주 : 1) 일별 기준

2장 2003.5.16 5:6PM 페이지66

<표 Ⅱ-`25> 코스닥시장 동향

	2001	2002 연간	I	II	III	IV
코스닥지수(기 말 기 준)	72.2 (37.3)	44.4 (-38.6)	92.7 (28.4)	60.9 (-15.7)	46.7 (-35.3)	44.4 (-38.6)
거 래 량(일평균, 만주)	38,371	32,042	38,516	31,321	28,009	30,621
거래대금(일평균, 10억원)	1,728.4	1,205.3	1,829.8	1,326.5	838.7	858.3

주 : ( )내는 전년말대비 등락률(%)

外國人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연중 2조 7천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외국인은 2월부터 매도우위로 돌아서 9월까지 순매도 기조를 지속한 후 미국주가 반등 등에 따라 10~11월중에는 큰 폭의 순매수를 나타내었으나 12월 들어 지정학적 위험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 證券投資資金도 10.3억달러 순유출되었다.

<표 Ⅱ-`26> 외국인 주식순매수 및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액 추이

	2001	2002 연간	I	II	III	IV
주식순매수[1] (10억원)	8,711.0	-2,711.4	-1,035.2	-2,595.5	-1,658.2	2,577.5
증권투자자금순유입(백만달러)	7,508	-1,031	62	-2,211	-1,383	2,501

주 : 1) 코스닥 시장 포함

한편 연중 株式發行(채무조정기업 출자전환분 제외)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가하락,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으로 주식발행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의 4조 4천억원에서 3조 7천억원으로 둔화되었다. 이를 시장별로 보면 거래소시장은 연중 2조원으로 전년의 1조 5천억원을 다소 상회하였으나 코스닥시장은 전년(2조 9천억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1조 6천억원에 불과하였다.

<표 Ⅱ-`27> 주식발행[1] 추이

단위 : 10억원

	2001	2002 연간	I	II	III	IV
유 상 증 자	2,835.0	1,355.9	315.5	603.6	301.5	135.3
거 래 소	1,266.9	772.5	140.7	398.5	217.4	15.9
코 스 닥	1,568.1	583.4	174.8	205.1	84.1	119.4
기 업 공 개	1,580.1	2,298.7	794.4	984.6	240.3	279.4
거 래 소	217.8	1,232.6	487.1	635.3	100.6	9.6
코 스 닥	1,362.3	1,066.1	307.3	349.3	139.7	269.8
총 계	4,415.1	3,654.6	1,109.9	1,588.2	541.8	414.7
거 래 소	1,484.7	2,005.1	627.8	1,033.8	318.0	25.5
코 스 닥	2,930.4	1,649.5	482.1	554.4	223.8	389.2

주 : 1)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채무조정기업 출자전환분 제외

채권 발행 및 거래 감소

債券市場은 예금보험기금채 및 회사채의 순상환 등으로 채권순발행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채권거래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연중 債券純發行은 전년의 93조 3천억원에서 49조 6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채권종별로 보면 국채 및 금융채 발행이 확대되었으나 예금보험기금채 및 회사채가 순상환되고 자산유동화채는 발행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國債는 국고채 발행이 줄었으나 외국환평형기금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발행규모가 전년의 11조 2천억원에서 15조 9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 通貨安定證券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순발행규모가 전년의 12조 7천억원에서 5조 2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會社債는 기업의 수익성 호전에 따른 신용리스크 축소, 장기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발행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로 신규발행이 줄어들고 만기도래분의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중 8조 1천억원 순상환되었다. 銀行債는 단기수신 증가 및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금조달 · 운용상의 만기불일치를 완화하고자 은행들이 발행을 늘림에 따라 순발행 규모가 전년의 4조 5천억원에서 27조 4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與信金融債도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재원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확대하면서 전년의 5조원에서 14조 4천억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特殊債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단락으로 예금보험기금채 및 부실

2장 2003.5.16 5:6PM 페이지68

채권정리기금채의 순상환이 이어지면서 전년의 26조 9천억원 순발행에서 6조 1천억원 순상환으로 반전되었다. 資産流動化債의 경우 카드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채권발행은 증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채권발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순발행규모가 전년의 24조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Ⅱ-`28> 채권발행 추이
(순발행액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연간	Ⅰ	Ⅱ	Ⅲ	Ⅳ
국채[1]	11,164.4	15,881.3	5,378.8	2,681.5	3,781.4	4,039.6
(국고채)	8,364.0	4,696.0	2,500.0	1,170.1	760.0	265.9
(외국환평형기금채)	300.0	7,150.0	1,700.0	889.4	2,100.0	2,460.6
통화안정증권	12,743.7	5,156.6	3,349.2	2,347.4	-139.0	-401.0
지방채[2]	-20.0	79.1	66.4	26.2	-12.8	-0.7
은행채[3]	4,524.8	27,441.7	7,514.5	4,251.3	5,099.2	10,576.7
여신금융채[4]	5,034.1	14,420.7	2,663.6	3,740.7	2,834.3	5,182.1
(카드채)	2,972.2	10,583.8	1,748.3	2,533.1	1,800.7	4,501.7
특수채[5]	26,894.9	-6,053.6	-2,465.9	-2,091.2	-935.7	-560.8
(예금보험기금채)	29,595.3	-1,061.5	-695.5	-366.0	-6.0	6.0
(부실채권정리기금채)	-406.7	-968.0	-	-	-968.0	-
회사채[6]	8,284.2	-8,060.3	-3,198.7	-3,612.1	-803.0	-446.5
자산유동화채	24,643.4	713.2	-1,730.5	-33.3	-2,028.8	4,505.8
계	93,269.5	49,578.7	11,577.4	7,310.5	7,795.6	22,895.2

주 : 1) 국고채, 외평채, 양곡기금채, 국민주택채, 용지보상채, 단 정부보증채(예금보험기금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 제외
2) 도시철도채 3) 국내은행 원화금융채
4) 카드채, 할부금융채, 리스채
5) 예금보험기금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 한국전력공사채, 토지개발채, 기술개발채
6) 법정관리 등 채무조정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등의 발행분 제외, Primary CBO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및 중도상환분 포함

한편 연중 債券 場外去來는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채권 공급물량 축소 등으로 유통수익률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기관투자가의 장기보유 성향이 높아져 거래규모가 전년수준을 밑돌았다. 채권종별로는 발행물량이 늘어난 은행채 여신금융채 등 금융채는 일평균 거래액이 전년의 6천억원에서 1조 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채는 전년의 3조 2천억원에서 2조 6천억원으로, 특수채는 1조 6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證券去來所 去來는 재정경제부가 10월부터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의 국채지표종목 거래를 장내로 제한함에 따라 4 · 4분기중 일평균 거래규모가 2천 7백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장외거래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Ⅱ-`29> 채권거래[1] 추이
(일평균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연간	Ⅰ	Ⅱ	Ⅲ	Ⅳ
장외거래 (a)	9,249.3	7,831.8	7,595.7	6,539.1	8,786.8	8,619.7
국채	3,221.0	2,647.9	2,739.3	1,996.3	3,211.5	2,718.6
(국고채)	2,740.3	2,337.8	2,466.2	1,770.7	2,824.2	2,347.7
통화안정증권	2,841.6	2,757.4	2,527.8	2,448.6	3,357.2	2,754.3
지방채	26.9	21.7	24.1	20.8	21.9	19.9
금융채[2]	637.0	1,129.4	1,011.6	1,009.8	1,144.5	1,388.5
특수채[3]	1,640.2	472.8	550.5	333.8	385.1	639.3
회사채	882.7	802.6	742.4	730.0	666.6	1,099.0
장내거래 (b)	37.6	169.2	33.6	177.4	212.9	268.6
합계 (a + b)	9,286.9	8,001.0	7,629.3	6,716.5	8,999.7	8,888.3

주 : 1) 위탁매매와 증권사간 직매매의 합계(단, 위탁매매는 매수 · 매도의 합계)
2) 은행채, 여신금융채(카드채, 할부금융채, 리스채) 등
3) 예금보험기금채, 한국전력공사채, 토지개발채, 도로공사채 등

3. 금융기관 여수신

단기수신 큰 폭 증가

연중 金融機關 受信은 장단기 금리차 축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유동성이 높은 단기수신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銀行 및 投資信託會社는 단기상품을 중심으로 수신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은행신탁계정 상호저축은행 등 여타 제2금융권은 수신이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銀行預金은 단기수신의 성격이 가미된 회전식 정기예금 등 정기예금과 CD RP 등 단기시장성 수신의 호조로 연중 67조 7천억원 늘어나 전년 증가규모(51조 8천억원)를 상회하였다. 投資信託會社 受信은 장기채권형 투자신탁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대표적 단기수신인 MMF의 증가세가 높아지고 단기채권형 투자신탁도 전년보다 늘어나 연중 증가규모가 14조 1천억원에서 16조 3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金錢信託 受信은 단기물인 CP에 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이 호조를 보였으나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의 만기도래자금이 계속 인출되면서 연중 7조 6천억원 감소로 반전되었다. 綜合金融會社 受信은 합병

2장 2003.5.16 5:6PM 페이지70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전년의 2조 1천억원 감소에서 87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郵遞局 預金은 전년(5조 7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1조 3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相互貯蓄銀行은 연초 일부 기관의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액신용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한 데 힘입어 연중 3조원 증가하였으나 전년 증가수준(4조 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밖에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중 1조 4천억원 감소하였다.

<표 Ⅱ-`30> 금융기관 수신 추이
(증감액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연간	I	II	III	IV
예금은행	51,824.7	67,664.9	30,356.4	16,038.9	6,377.1	14,892.5
실세요구불	6,048.3	8,555.3	1,720.1	1,765.2	163.7	4,906.3
저축성예금	45,197.3	44,911.3	19,814.7	7,747.3	7,048.1	10,301.2
(정기예금)	9,527.8	33,273.5	14,400.6	8,022.7	6,373.5	4,476.7
(적립식예금)	8,466.9	1,612.0	-1,462.5	1,644.9	997.1	432.5
(수시입출식예금)	27,202.6	10,025.8	6,876.6	-1,920.3	-322.5	5,392.0
<MMDA>	8,457.8	-57.8	2,852.6	-3,650.9	-2,196.0	2,936.5
단기시장성수신[1]	579.1	14,198.4	8,821.6	6,526.4	-834.6	-315.0
투자신탁회사	14,055.5	16,343.1	15,046.1	-3,453.5	4,966.4	-215.9
(단기채권투자신탁)	8,837.2	10,567.5	1,706.7	479.1	4,004.8	4,376.9
(장기채권투자신탁)	-1,055.5	-14,543.1	-6,964.4	-4,544.3	-1,984.2	-1,050.2
(MMF)	8,462.7	13,981.6	12,987.4	-4,606.4	3,413.5	2,187.1
(주식형수익증권)	2,561.7	2,696.0	1,745.2	836.7	118.9	-4.8
(혼합형수익증권)	-4,750.6	3,641.1	5,571.2	4,381.4	-586.6	-5,724.9
금전신탁	3,632.4	-7,617.4	-5,471.8	-457.4	-2,064.6	376.4
(추가금전신탁)	1,096.8	-2,132.0	-886.2	-577.9	-184.6	-483.2
(노후생활연금신탁)	7,947.5	-6,422.5	-3,137.3	-1,210.8	-884.0	-1,190.4
(단위금전신탁)	637.7	-881.1	39.7	-9.3	-496.2	-415.3
(신종적립신탁)	-5,692.2	-4,263.3	-1,231.7	-1,239.4	-1,007.7	-784.5
(특정금전신탁)	5,204.5	11,201.7	1,590.9	3,800.4	1,722.7	4,087.7
(개발신탁)	-818.5	-28.5	-6.9	-4.7	-2.4	-14.5
(가계장기신탁)	-2,936.9	-3,918.5	-1,363.2	-1,097.7	-826.8	-630.8
(기타)	-1,806.5	-1,173.1	-477.1	-117.9	-385.5	-192.6
종합금융회사	-2,064.7	8.7	1,956.2	-1,094.8	173.5	-1,026.2
(발행어음)	-1,869.0	3.4	1,352.4	-510.3	2.3	-841.0
(CMA)	-195.7	5.3	603.8	-584.5	171.2	-185.2
우체국예금	5,696.6	1,263.2	-436.1	865.8	-726.1	1,559.6
상호저축은행	4,715.2	2,952.0	1,130.0	750.4	141.6	930.0
증권사고객예탁금	3,500.3	-1,417.3	2,446.0	-2,426.3	-1,340.6	-96.4
주식형뮤추얼펀드	3,151.3	1,297.1	903.9	254.6	247.2	-108.6

주 : 1) CD, RP, 표지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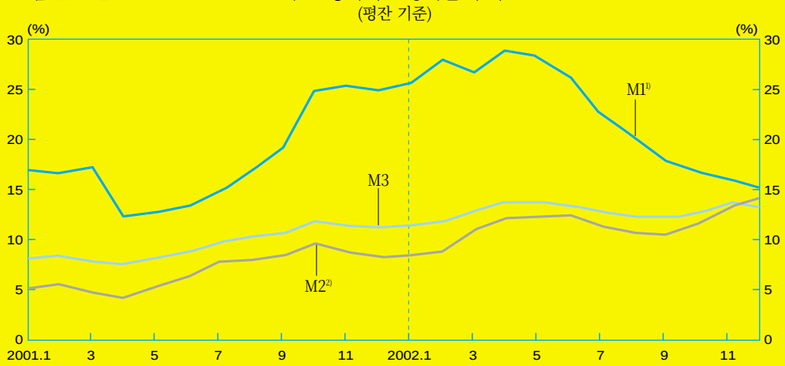
M3 증가율 감시범위 상회

總流動性(M3) 증가율이 감시범위를 상회한 가운데 狹義通貨(M1) 증가율은 연 중반경부터 빠른 속도로 낮아져 광의와 협의의 통화지표간 괴리가 크게 축소되었다.

M3 증가율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월 이후 감시범위(8~12%)를 상회하여 4~5월중에는 13.7%까지 상승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전년 7~9월중 3차례에 걸친 콜금리 목표 인하에 따른 M3 증가율 상승의 반사효과 등으로 12%대 중반으로 둔화되었다가 11월 이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다시 13%대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M3 증가율은 연평잔 기준으로 전년의 9.6%에서 12.9%로 높아졌다.

M3에서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과 생명보험회사 수신 등을 제외한 廣義通貨(M2)는 M3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연평잔 증가율이 전년의 6.9%에서 11.5%로 높아졌다.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의 단기수신 호조로 2 · 4분기까지 25%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그 후 전년도 반사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져 10월부터는 15~16%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연평잔 M1 증가율이 전년의 18.0%에서 22.5%로 높아졌으나 M1과 M3 증가율간 괴리는 전년 12월의 13.7% 포인트에서 연말에는 1.9% 포인트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Ⅱ-`32>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평잔 기준)



주 : 1)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 M1 + 기간물 예 · 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 + 실적배당형상품 + 금융채 등, 단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2장 2003.5.16 5:6PM 페이지72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큰 폭 증가

연중 銀行貸出(신탁대출 포함)은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의 37조 8천억원에서 98조 6천억원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大企業貸出은 영업실적 호전, 부채감축 노력,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지연 등으로 대출수요가 부진하여 연중 1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中小企業貸出은 중소기업의 단기 운영자금수요 증가, 은행들의 대출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연중 37조 1천억원 증가하여 전년의 11조 9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Ⅱ-`31> 은행대출[1] 추이 (증감액 기준)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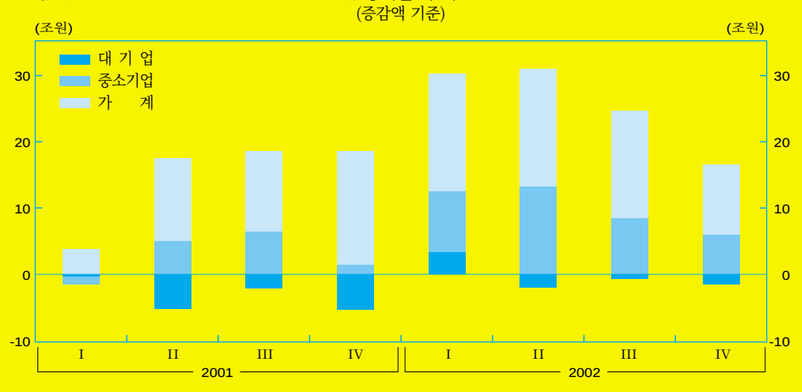
	2001	2002 연간	I	II	III	IV
은행계정대출	46,164.7	99,923.8	31,229.5	28,659.6	24,379.4	15,655.3
신탁계정대출[2]	-8,414.7	-1,354.1	-514.3	-495.7	71.9	-416.0
대기업	-11,988.6	118.9	3,344.0	-1,705.0	-277.7	-1,242.4
중소기업	11,938.1	37,091.4	9,267.8	13,196.5	8,514.3	6,112.8
가계	45,017.8	61,595.4	17,435.9	17,633.7	16,011.7	10,514.1
(주택담보)	n.a.	45,936.8	12,034.6	12,645.9	11,804.1	9,452.2
기타[3]	-7,217.3	-236.0	667.5	-961.3	203.0	-145.2
총대출	37,750.0	98,569.7	30,715.2	28,163.9	24,451.3	15,239.3

주 : 1) 부실채권 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CLO발행 등과 관련한 장부상의 증감요인 포함
2) CP할인 제외
3) 공공법인 및 기타법인

家計貸出은 은행의 자금사정이 양호한 가운데 저금리 지속 및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에 따른 가계의 차입수요 증가, 은행들의 가계대출 확대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년의 증가폭(45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61조 6천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말 현재 은행의 총대출잔액중 가계대출 비중이 전년말의 44.2%에서 48.1%로 크게 높아졌다. 가계대출 동향을 기간별로 보면 3월중 7조 7천억원에 달하였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사철 종료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신장세 둔화로 6~7월에는 월 4조원대로 낮아졌으나 8월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다시 급신장하여 9~10월중에는 월 6조원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11월 이후 그 동안 취해진 가계대출 억제조치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월중 증가액은 2조원대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연중에는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2001년 1조 7천억원 증가 → 2002년 5조 7천억원 증가)와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0조 1천억원 증가 → 13조 5천억원 증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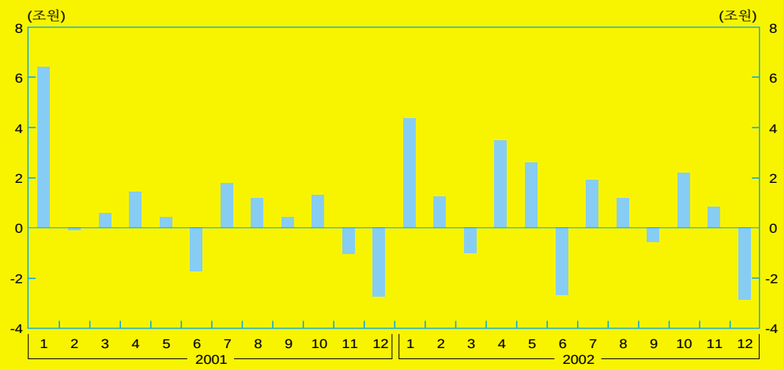
<그림 Ⅱ-`33> 은행대출 추이 (증감액 기준)



연중 금융기관의 기업어음(CP) 순매입은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CP발행 수요가 늘어난 데다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계정 등 기관투자가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CP 매입 수요도 증가하여 전년의 8조 1천억원에서 10조 9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기간별로는 분기 및 반기결산월중 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CP발행을 자제하고 금융기관도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CP매입을 억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대체로 순매입 추세가 지속되었다.

2장 2003.5.16 5:6PM 페이지74

<그림 Ⅱ-`34> CP할인[1] 추이



주 : 1) 증권사, 은행신탁, 종합금융회사의 CP 할인액 기준

4. 자금사정

연중 企業資金事情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본격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았던 반면 콜금리 목표의 낮은 수준 운용으로 유동성은 풍부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였다.

전국 어음不渡率(금액기준)은 대우계열사의 회사채 부도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거액부도가 마무리되고 전반적인 기업자금사정이 원활한 데 힘입어 전년의 0.23%에서 1991년(0.06%) 이후 최저 수준인 0.06%로 하락하였다. 분기별로는 1 · 4분기의 0.08%에서 2 · 4분기에는 0.06%로 더욱 낮아진 후 하반기중에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월평균 不渡業體數(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전년의 440개에서 354개로 감소하여 1990년(342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8대 도시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부도업체수 감소 등으로 전년의 16.9배에서 19.8배로 높아졌는데 이는 동 배율을 편제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한편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當座貸出限度 消盡率(시중은행 기준)은 전년말의 12.1%에서 11.5%로 하락하였다.

<표 Ⅱ-`32> 주요 기업자금사정지표 추이

단위 : %, 개

	2001	2002				
		연간	Ⅰ	Ⅱ	Ⅲ	Ⅳ
어 음 부 도 율[1]	0.23 <0.09>	0.06 <0.05>	0.08 <0.06>	0.06 <0.05>	0.06 <0.06>	0.06 <0.06>
부 도 업 체 수[2]	440	354	333	326	359	397
당좌대출한도소진율[3]	12.1	11.5	12.6	12.3	12.8	11.5
기 업 대 출 연 체 율[4]	1.9	1.8	2.1	1.8	2.2	1.8

주 : 1) 금액기준, 전자결제액 조정후, < >내는 대우계열사 및 금융기관 제외시 부도율
2) 월평균 부도업체수
3) 시중은행 기준(기말기준), 단 2001년말 및 2002년말은 연말 결산전 일시적인 당좌대출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12.25일 수치를 이용
4) 예금은행 기준(기말기준)

<표 Ⅱ-`33> 8대 도시[1]의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

단위 : 개

	2001	2002				
		연간	Ⅰ	Ⅱ	Ⅲ	Ⅳ
신 설 법 인 수(A)	39,609	38,972	10,983	10,063	8,722	9,204
부 도 법 인 수(B)	2,349	1,973	472	463	492	546
A/B(배)	16.9	19.8	23.3	21.7	17.7	16.9

주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5. 외환시장

외환의 공급우위기조 유지

2002년중 外換需給事情을 보면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자본유입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外換의 供給優位基調가 유지되었다.

이처럼 외환의 공급우위기조가 유지된 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대되고 엔貨 및 유로貨 표시 자산의 미달러貨 환산액이 증가함으로써 연말 현재 外換保有額은 전년말에 비하여 186억달러 늘어난 1천 214억달러에 달하였다.

2장 2003.5.16 5:6PM 페이지76

<표 Ⅱ-`34> 외환보유액 추이
(기말 기준)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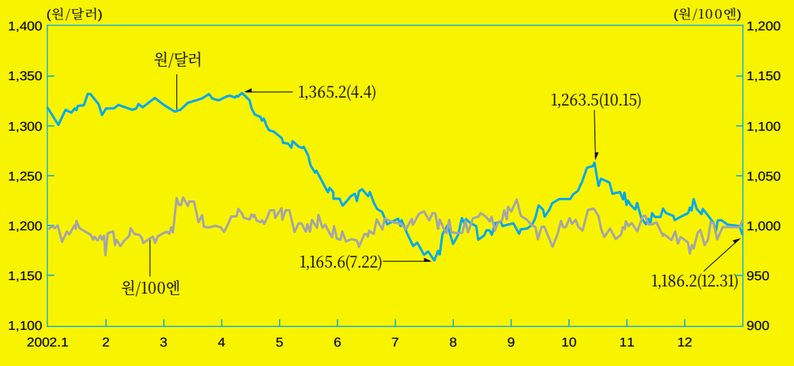
2000	2001(A)	2002				B-A
		3월	6월	9월	12월(B)	
962.0	1,028.2	1,060.9	1,124.4	1,166.9	1,214.1	185.9

원貨의 對美달러貨 換率 큰 폭 하락

원貨의 對美달러貨 換率은 원貨의 엔貨 同調化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미달러貨가 엔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급격한 약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연초 1,320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인 원貨환율은 3월 이후 外國人 株式投資資金의 순유출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4월 12일 연중 최고 수준인 1,332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수출호조 등으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美달러貨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 회계부정 사건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엔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급격한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貨환율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7월 22일에는 연중 최저 수준인 1,166원으로 떨어졌다.

<그림 Ⅱ-`35> 원화의 대미달러화 및 대엔화 환율 추이



7월 하순 이후에는 일본 경제의 상대적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엔貨가 미달러貨에 대하여 약세로 돌아서고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순매도가 지속됨에 따라 원貨환율은 빠른 상승세를 보여 10월 15일에는 1,264원까지 반등하였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이라크 전쟁 위험 고조 등으로 미달러貨가 약세를 보인 데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원貨의 對美달러貨 換率은 하락세를 보여 2002년말 현재 전년말의 1,314원에 비해 10.7% 切上된 1,186원을 기록하였다.

원貨의 對엔貨 換率은 원貨와 엔貨 환율의 상관계수가 0.97로 전년(0.67)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등 원貨의 엔貨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연중 100엔당 980~1,020원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2002년말 현재 100엔당 1,013원을 기록하였다.

<표 Ⅱ-`35>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1)]
(기말 기준)

	2001	2002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U$	1,313.5 (-3.7)	1,325.9 (-0.9)	1,201.3 (+9.3)	1,227.8 (+7.0)	1,221.6 (+7.5)	1,208.8 (+8.7)	1,186.2 (+10.7)
₩/100¥[2)]	1,009.4 (+9.1)	999.0 (+1.0)	1,004.5 (+0.5)	998.4 (+1.1)	1,003.5 (+0.6)	988.2 (+2.1)	1,012.9 (-0.3)
¥/U$ [3)]	131.64 (-13.1)	132.78 (-0.9)	119.59 (+10.1)	121.70 (+8.2)	122.50 (+7.5)	122.48 (+7.5)	118.79 (+10.8)

주 : 1) 종가기준, ( )내는 전년말 대비 절상(+) · 절하(-)율(%)
2) 금융결제원 고시 재정환율
3) 뉴욕시장 기준

한편 원貨환율의 變動性은 원貨환율이 안정된 1 · 4분기까지는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원貨환율이 급등락한 2 · 4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가 4 · 4분기 들어 다소 축소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前日對比 變動率이 0.31%, 日中 變動率이 0.50%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다.

2장 2003.5.16 5:6PM 페이지78

<표 Ⅱ-`36>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1] 추이

단위 : %, 원

	2000	2001	2002				
			연간	Ⅰ	Ⅱ	Ⅲ	Ⅳ
전일대비변동률[2]	0.29	0.37	0.31	0.19	0.29	0.40	0.36
(전일대비변동폭)	(3.3)	(4.8)	(3.8)	(2.5)	(3.6)	(4.7)	(4.4)
일중변동률[3]	0.46	0.52	0.50	0.39	0.43	0.61	0.56
(일중변동폭)	(5.3)	(6.7)	(6.2)	(5.2)	(5.5)	(7.3)	(6.9)

주 : 1) 기간중 평균
2) (금일종가 - 전일종가)의 절대값/전일종가 × 100(%)
3) (일중최고가 - 일중최저가)/당일평균환율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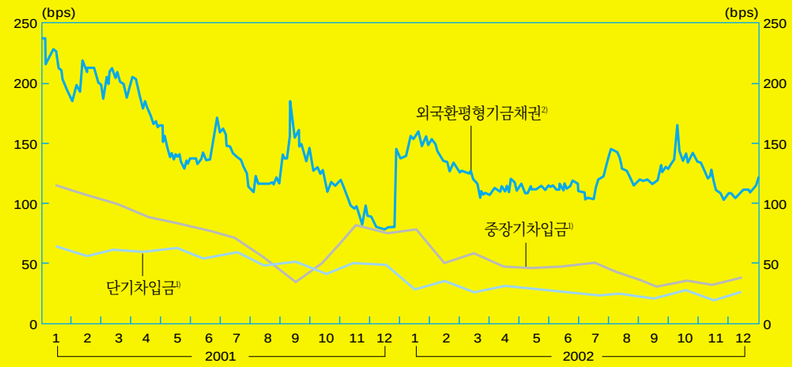
해외차입여건 크게 개선

금융기관의 長短期 海外借入與件은 외화유동성 사정이 호전되고 우리나라의 國家信用等級이 상승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 시중은행의 短期借入金(차입기간 1년 이내) 加算金利는 1월중 외환위기 이전수준인 29bps로 낮아진 후 Moody's社(3월 28일, Baa+ → A3), Fitch社(6월 27일, BBB+ → A)및 S&P社(7월 24일, BBB+ → A-)의 연이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호전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중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1bps를 기록하였다가 12월중에는 27bps로 다소 높아졌다. 中長期借入金 加算金利도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1월중 78bps에서 12월중 32bps로 하락하였다.

外國換平衡基金債券 加算金利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 19일에는 연중 최저수준인 103bps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7월 하순 이후 이라크 전쟁 위험 고조 및 브라질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신흥시장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10일에는 연중 최고수준인 165bps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후 Moody's社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11월 15일, stable → positive)하면서 11월 25일에는 103bps로 급락하였다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상승하여 연말 현재 123bps를 기록하였다.

<그림 Ⅱ-`36> 장단기차입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 추이



주 : 1)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시 기준금리(LIBOR)에 가산되는 금리(12개 국내은행, 월평균)
2)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2008년만기) 발행 · 유통시 기준금리(미국 재무부증권 금리, 2001년까지는 10년물, 2002년에는 5년물기준)에 가산되는 금리